

# 周圖

第 2 號

會 協 記 速 韓 大 學 法 社

會 同 所 成 養 士 記 速 會 國

圓 周

'77. 2.



國會速記士養成所同門會刊

# 圓周第2號

## ~ 차 례 ~

---

〈卷頭言〉	激勵	.....	所長	鄭東祐	.....	5
速記와	同門會	.....	會長	河良培	.....	7
보다나은	來日을	.....	前副會長	金彩榮	.....	10
◎	論壇					
	ALCHOL 이	肝疾患에 미치는 영향	.....	金銀珠	.....	12
*	會員文壇					
	접음은	가슴마다	.....	具寬謨	.....	19
隨筆	별과	想念	.....	김정민	.....	25
	내가	좋아하는 것들	.....	박미향	.....	31
隨想	하루반의	旅行	.....	金銅洙	.....	35
	有志者	事必勝	.....	李泰鎬	.....	39
	失戀記	.....		金致元	.....	44
短篇	그	女子는	.....	金銀淑	.....	52
	겨울비와	老人	.....	李柱成	.....	57
	過渡期	.....		鄭明順	.....	63
書簡	겨울밤의	追憶	.....	李永烈	.....	68
	멀리	一線에서	.....	이승곤	.....	71

---

詩	서오능 고개 .....	한진규 .....	73
	꿈의 葉書 .....	장순임 .....	74
	死 .....	金在成 .....	75
	歸路 .....	김진태 .....	76
◎ 어설픈 회고담 .....	윤희억 .....	77	

* 양케이프	81		
* 同門會 沿革	89		
* 會員名單	91	38	第3回 定期總會消息
* 編輯後記	94	67	任員陣

題字 / 徐 錫 源  
 컷 / 박 미 향

내게 말하지 마소 슬픈 곡조로  
“인생은 헛된 것이라고”  
죽은 영혼이라는 것은 잠자는 것뿐,  
만물의 외양대로 볼 것이 아닐세.  
인생은 참되어라 / 진지하여라 /  
무덤이 그의 목적이 아닐세.  
“너는 본디 흙이라 흙이 되리라”  
이 말은 영혼을 말함이 아닐세.  
우리의 가는 길은 가야 할 곳은  
항락이 아니로세, 비애도 아니로세.  
각개의 명일이 금일보다는 낫도록  
행동함이 그것일세.

— 롱펠로우의 「人生讚歌」 中에서 —

<卷頭言>

激 勵

所 長 鄭 東 祐

幸運을 뜻하는 數字가 겹친 77年의 新春을 맞으려는 이 때 本人은 會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새해의 人事와 激勵의 뜻을 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議會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案件等의 科學的인 記錄과 保存을 위하여 이에 관한 專門的 理論과 技術을 研究 教授함으로서 有能한 速記人을 養成한다는 目的에서 國會에 速記士養成所가 設立된 以來 9年에 이르는 동안 298名의 修了生을 輩出하였으며 이중 57名을 國會速記 職公務員으로 充員하였는바 이는 오로지 이에 從事하는 教職員 여러분의 努力과 先輩 여러분의 協力の 結果라고 생각합니다.

1975年 9月1日 國會議事堂이 舊議事堂(太平路所在)에서 汝矣島로 新築移轉됨과 함께 本養成所도 移轉하였고 이제 많은 同門들이 國會의 速記實務에 臨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우리나라 各界各層의 速記界에서 主流를 이루게 될 것임을 豫測할 때 速記文化의 普及과 記會速記發展에 대한 여러분에게 걸고 있는 期待는 자못 크다고 하겠읍니다.

當養成所의 門을 두드린 여러분들이 社會 各分野에서

말은바 技倆을 發揮하여 國家社會發展에 이바지하고 있는  
事實에 想到할 때 흐뭇한 마음 禁치 못하는 바입니다.

비록 國會事務處에 몸담지는 않았으나 養成所에서 一年  
동안 기른 忍耐 必成의 精神으로 어려움을 克服하고 굳  
센 意志와 타오르는 情熱로서 어느 곳에서나 말은 任勞  
를 충실히 다 하는 社會의 役軍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또한 不斷한 人格陶冶와 能力의 啓發을 위한 知識을 쌓  
는데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偉大한 일의 成就是 使命感을 갖는에서부터 비롯  
되므로 여러분은 오늘의 現實을 直視하고 밝은 未來像에  
接近하는데 인식하지 말고 모든 事理를 바로 判斷하여  
累千年의 停滯와 간난을 벗어나 民族中興을 이룩하는데  
一翼을 担当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擔부하는 바입니  
다.

끝으로 國會連記士養成所 同門會의 無限한 發展과 여러  
분의 앞날에 榮光이 있기를 衷心으로 祈願합니다.

( 國會事務處 議事局長 )

## 速記와 同門會

會長 河 良 培

새희망과 기대에 찬 77年을 맞아 會員 여러분과 그 家庭에 萬福이 깃들기를 祈願하며 會員 相互間의 親睦 圖謀와 母校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출발했던 同門會에 올해는 더욱 內實을 기하는 한해가 될 것을 여러 會員과 함께 所望해 봅니다.

우리 同門會가 發足한지 이제 3年입니다. 그간 運營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마치 한겨울에 보리가 寒波를 이기고 강한 生命力으로 성장하듯이 그 가운데에서도 第2号 會誌를 發刊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이제는 同門이 1期에서 9期까지 폭넓게 되고 社會各方面으로 진출해 활약하고 있음을 볼때 가히 世代差異를 느끼게도 되었으며 우리의 위치를 스스로 定立해 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文字 그대로 親睦 圖謀와 母校發展에 어떻게 하면 보탬이 될 수 있을까 기획있는 메로 方案을 모색하지만 의욕과는 달리 口吻에만 그칠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全會員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連帶感 적어도 1年餘 그 햇별조차 들기 거부하는 지하실



에서 速記를 배우느라 凝固된 삶을 情熱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절로 共同体的인 意識이 들줄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速記라는 것에는 魔力이 숨어 있는지도 모르  
겠습니다. 일단 實務를 하든 연습을 하든 速記를 하  
는 시간에는 世上煩事를 잊고 速記에만 專念하게 마련  
입니다. 그 速記를 忍苦 끝에 배우고 9期生이 또  
修了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速記實務에 종사하든 안  
하든 배우는 과정에서 体得한 忍耐라는 한 單語만 가  
슴속에 새겨둔다면 어느 길을 가든지 世波를 헤치는데  
좋은 武器가 될 것이며 그로써도 1年을 희생한 가치  
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人生은 片道行 旅行이라 합니다. 往復旅行이 아닌  
그 旅路에 어쩌다가 同伴했던 同期生들이야 말로 더없  
는 친밀감을 느끼게 되며 한 걸음 나아가 速記로 맺어  
진 先後輩의 結集体인 養成所 同門會의 존재이유를 발  
견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生成된 同門會에 會員여  
러분이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함으로써 名實相符한  
同門會로 발전될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缺點을 덮는다고 했거니와 우리는 包容  
力있게 한 걸음만 물러서서 事物을 肯定的으로 思考하는  
지혜를 갖도록 하고 나에 속한 모든것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좀 미흡하나마 우리가 속한 同門會를 會員  
스스로 감싸고 키워야 될줄 생각합니다.

아직은 추운 날씨입니다. 그러나 곧 먼산에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새봄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밝은 내일을 바라보는 꿈을 가꾸어야 하겠읍니다.

끝으로 지난 1年間 어려운 환경하에서도 훌륭하게 所任을 다한 前任員陣과 第2号 會誌發刊에 도움을 주신 大韓速記協會 및 養成所 여러 先生任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 × ×

\* 길은 가까운 곳에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헛되이 먼곳을 찾고 있다.

일은 해보면 쉬운 것이다. 시작을 하지않고 미리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놓쳐 버리는 것이다. \*

- 맹 자 -

## 「보다 나은 來日을…」

—前副會長 金彩榮—

丁巳年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와 함께 우리의 모임도 새 회장단과 임원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년동안 우리를 대표하여 本會의 온갖 일을 해 나갈 이분들에게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2년전에 출발한 우리의 모임이 벌써 세살박이로 자라났습니다. 그간에는 어려운 일이나 곤란한 일들을 맞이하여 애틀 먹은 적도 있었으나만은 그때마다 우리는 모두가 舍心協力하여 克服하여 왔으며 그리하여 우리의 모임을 이만큼 키워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새 회장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임을 더욱 뜻있고 보람있는 것으로 키워가기에 會員 모두가 참여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本會의 고문 이하 양성소의 지도교사 여러분, 또 각종 행사때마다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신 여러분들 특히 임원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귀한 시간과 노력을 나누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우리의 모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

와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가 심은 묘목이 하루하루 자라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많은 열매를 맺고 시원한 그늘을 주고 눈비와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큰나무가 되도록 우리의 정성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농부의 말을 빌지 않아도 자연은 우리의 노력과 정성에 알맞는 열매만을 맺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속기를 배울 때의 정성으로 우리가 심은 이 나무를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회원 여러분의 고마운 협조에 다시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 ALCOHOL 이 肝疾患에 미치는 影響

金 銀 珠 (4 期)

## 「ALCOHOL 이 肝疾患에 미치는 影響」

### 1. 序 論

### 2. 本 論

#### I. alcohol 의 生理學的 機能

#### II. 肝內 alcohol 代謝와 alcohol 中毒

#### III. alcohol 에 의한 肝疾患

### 3. 結 論

#### 1. 序 論

alcohol 은 世界 어느 곳에서나 또는 社會 各界各層에서 널리 즐겨 마시고 있는 飲料로서 이에 따른 社會, 心理的인 問題, 國民保健上의 問題가 생기게 된다.

alcohol 을 오랫동안 過飲하면 人間이 가진 臟器中 가장 중요한 肝의 機能에 장애가 오고 肝疾患이 발생하게 된다.

alcohol 에 의한 肝疾患으로는 脂肪肝, 肝炎, 肝硬變症 등이 있는데 alcohol 이 위의 疾患에 미치는 影響에

대해서는 1973年 Matthew-Baillie, Andersons 등이  
처음 착안한 이래 많은 研究가 있었으나 아직도 확실한  
것은 糾明되지 않고 있다.

alcohol 中毒에 의한 肝疾患의 原因으로는 alcohol  
섭취로 인한 다른 필수영양소 결핍에 의한 것, alcohol  
자체의 毒素에 의한 것, Choline, betain, methionine  
과 같은 lipotropic factor 의 결핍등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는 alcohol 이 肝의 機能에 미치는 직접 또  
는 간접적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2. 本 論

### I. alcohol 의 生理學的 機能

단순한 生理學的인 觀點에서 alcohol 은 매우 重要  
한 物質이다. alcohol 을 飲料의 成分으로 섭취하면  
빠르게 血流로 흡수되어 腦에 있어서 진정제의 효과가  
acidosis 에 의해 나타나고 中樞神經組織을 진정시키  
는 효과가 있어 근심과 불안, 社會的인 不安으로 부터  
자유로와져서 예리한 판단력을 상실해 버린다. 胃, 小  
腸에서 흡수된 alcohol 은 흡수량의 90 ~ 98 %는  
完全 酸化되어 energy 의 원천으로서 利用되고 나머  
지 2 ~ 10 %는 호흡, 尿, 피부를 통해 排泄된다.

alcohol 이 흡수되는 速度의 比率과 濃度의 差에

따라서도 人体에 各各 다른 영향을 미친다. 희석이 많이 된 alcohol은 血液에 있어서 alcohol의 蓄積速度가 느리고 Mellanby에 의하면 低濃度일때 보다 高濃度일 때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飲酒의 習慣, 술의 種類, 나아가서는 술을 마시는 사람에 따라 人体가 받는 영향이 다른데 이러한 사실은 遺傳學的으로 설명할 수 있고 alcohol을 代謝시키는데 필요한 要素가 肝에서 生産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 II. 肝内 alcohol 代謝와 alcohol 中毒

alcohol이 人体에 섭취되면 각 器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血中 alcohol濃度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alcohol 代謝의 한 段階를 나타낸다.

alcohol 代謝는 주로 肝内에서 이루어진다. alcohol은 肝内에서 alcohol dehydrogenase의 媒介로 acetaldehyde로 酸化되고 acetaldehyde dehydrogenase에 의해 acetate로 변한다. 따라서 alcohol을 섭취하면 血液内 acetate量이 증가하게 된다.

chronic alcoholism에서는 alcohol에 대한 耐性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alcohol 酸化와 관계되는 alcohol dehydrogenase와 acetaldehyde dehydrogenase의 活性이 증가하기 때문이거나 体内에서

alcohol 이 제거되는 다른 機轉이 있기 때문이다.

이 acetate 는  $CO_2$  와  $H_2O$  로 변하기도 하고 citric acid cycle 을 形成하며 또한 脂肪酸과 다른 生理學的으로 중요한 物質로 變한다.

이러한 代謝過程을 거치는 alcohol 을 長期間 多量 섭취하게 되면 alcohol 中毒에 걸리게 되는데 Mendelson 은 alcohol 中毒은 過飲에 의해 생긴 disorder 로서 사람의 건강 또는 社會的 機能에 장애가 오는 것이라고 alcohol 中毒에 대한 定義를 내렸다. 따라서 chronic alcoholism 은 여러날을 계속하여 충분한 alcohol 이나 硬한 liquor, beer, wine 을 섭취하면 blood 나 tissue 에 high alcohol 이 농축하게 되는 것이며 이 농축된 alcohol 은 脂肪肝을 유발시키는 要因이 된다.

### Ⅲ. alcohol 에 의한 肝疾患

사람에게는 자주 肝疾患이 發生하게 되는데 모든 肝疾患에 肝에 脂肪이 축적되므로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

Norris 는 脂肪肝은 chronic alcoholism 과 함께 그 장애가 온다고 하였다.

正常狀態에서는 肝重量의 3~6%가 脂肪인데 病的인 狀態에서는 10~40%를 脂肪이 차지하며 이때 中性脂肪이 많아진다. 一般的으로 肝細胞의 活動이 低



下되면 肝에 脂肪이 축적되는데 이러한 肝을 脂肪肝이라 한다.

脂肪肝의 原因으로는 여러가지 學說이 많으나 alcohol 中毒과의 관계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alcohol 中毒에 의한 脂肪肝이 alcohol 自体의 毒性에 의한 것인지 또는 alcohol 섭취로 말미암은 영양부족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도 論難이 많다.

Rubin 과 Liber 는 實驗에서 non-alcoholic 에게 충분한 영양을 주면서 alcohol 을 공급하면 肝에 脂肪이 축적됨을 발견하여 normal nonalcoholic people 에서는 alcohol 自体가 hepatotoxic 이고 nutritional factor 에 의존하지 않고 급속히 脂肪肝을 生産한다고 했고 Lieber 의 實驗에서도 이와같은 結論을 얻었다.

反面에 Best 는 그의 實驗에서 脂肪肝은 ethanol 自体에 의한 것 보다는 Protein, cholin, methionine 이나 folic acid, Vitamin B12들의 영양부족이 脂肪肝發生에 중요한 영양을 비친다고 하였다.

또한 alcohol 은 肝內 中性脂肪除去에 필요한 物質인 choline 의 合成을 방해하여 肝으로부터 脂肪流出을 방해하여 脂肪肝이 發生하게 된다.

Lieber 에 의하면 음식물에 포함된 脂肪의 含量이

alcohol 에 의한 脂肪肝의 狀態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alcohol 中毒에 있어서의 脂肪肝의 發生은 매우 복잡하다. 發生原因의 一部는 食餌性蛋白質 특히 choline 결핍에 관련이 있고 他面으로는 alcohol 이 生体内의 脂肪組織으로 부터 脂肪을 肝内로 移動시켜서 脂肪肝이 發生하게 된다.

alcohol 中毒에 의해 發生되는 脂肪肝은 肝硬變症에 중요한 病原學的인 역할을 하고 肝疾患의 最終段階로서 肝硬變症이 나타난다.

일찌기 紀元前 Hippocrates(460 ~ 375 B.C)에 의해 發見된 肝硬變症은 Laennec 에 의하여 Cirrhosis 라는 술어로 記載되었는데 肝質細胞가 崩壞하고 그대신 肝質組織이 增殖하여 肝이 굳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 病의 主要發生原因으로는 alcohol 과 관련이 많고 脂肪肝은 肝硬變症의 先行疾病으로 나타나 脂肪肝과 肝硬變症과는 서로 因果關係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3. 結 論

alcohol 은 体内吸收過程을 통하여 肝의 機能과 肝内 代謝過程에 여러가지 영향을 미친다. alcohol 을 오랫동안 많이 마시면 必須成分의 섭취량이 부족하게 되므로 肝에 영향을 미쳐 脂肪肝과 같은 臨床的인 장애를 초래하고 肝災, 肝硬變症 등의 病을 유발시킨다.

alcohol 의 肝疾患에 대한 영향은 그 機轉에 따라 lipotropic factor 의 결핍에 의한 間接적인 것, 또는 alcohol 毒性自体가 직접 영향을 준다는 學說이 있으나 學者들간에는 아직도 論議이 있는 分野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原因糾明과 alcohol 中毒에 관한 豫防法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肝疾患의 적절한 豫防法과 治療法에 관해서는 계속 더 연구해야 할 分野의 問題이다.

(原 論文中 抄)



## 젊음은 가슴마다

具寬謨(1期)

요즘은 웬일인지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주위가 자꾸만 얽혀들기만하고 잘 풀리지 않는 매듭을 풀듯 답답한 어려움만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듯 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의 실수를 적게하면서 어려운 처지를 벗어나고 헤어나려고 노력해봅니다마는 그때마다 느끼는 아픔은 단지 나의 아픔만은 아닌것 같애 하루 빨리 이를 척결할 수는 없을까 하고 걱정한 걱정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 모든 것을 고치고 개선되어 나간다면 모르겠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조용히 나를 반추하고 사색에 젖으며 마음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화 FM에서 방송되었던 일장을 펴며, 여러회원과 함께 사고하여 보고자 합니다.

77.1.20

사람은 누구에게서나 사랑 받기를 원하고 관심속에서 살기를 좋아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반기고 내가 안보이면 보고 싶어하면서 내 안부를 궁금해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생의 기쁨을 맛보기도 합니다. 한마리의 강아지 조차도 나를 따르기 때문에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뜻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를 미워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절박한 마음에 쫓기기도 합니다. 의외의 상대가 나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요. 그런 상대들이 때로는 생존경쟁 때문이기도 한 것을 깨닫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한발씩 남에게 앞서기를 원할때 생기는 경쟁자로서의 미움이나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리한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린시절에도 우리는 가슴이 후끈거리는 그런 경쟁의식 때문에 머리가 뜨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보다 노래 잘하는 아이가 학급친구들의 인기를 독차지할 때 느꼈던 패배감은 아직도 머리에 생생합니다. 그날부터 식초를 마시면 목소리가 고와진다는 달을 듣고 엄마 몰래 식초를 먹기도 했을 것이고, 성적이 비슷한 친구에게는 까닭 없이 적대감을 품고 대하던 기억도 새롭습니다.

이유 없이 밉고, 실로 욕하고 싶은 친구에게도 왜 그래야만 하는 가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 상대와의 사이에 팽팽하게 맞서는 실력 타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정도 나이가 들었어도 그런 경험은 여러면에서 겪고 있다해도 틀린말은 아닐 것입니다. 2등

을 해서 장학금을 놓치고 났을때 1등한 애에 대한 반감은 순간적으로나마 우리를 괴롭힙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상대도 갖고 싶어할때 경각심과도 같은 반발의식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 심정은 나만 지니는 것은 물론 아니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상대가 나를 향해 도전적인 자세로서 경쟁의식을 품고 대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니까 여기서 필요한 것 다시말해서 내가 상대로 하는 경쟁자나 나를 상대로 도전해 오는 상대자들 어떻게 하려면 무리없이 비켜낼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사사건건 나를 물고 늘어지는 친구가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내 동정을 살핀다든지 내가 할 수 있고 하려고 하는 일에 선수를 치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 나를 곤혹스럽게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역시 내 수준과 비슷한 사람을 향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결하고 있음을 자각하는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식이 경우에 따라서는 나를 지극히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그나마 지낼 수 있었던 내 pace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서로 비슷한 처지이고 비슷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질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보다 상대의 앞길을 막기 위해 쓴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거는 어렵겠지요. 게다가 내

생각은 비슷하니까 물리칠 수 있다고 여길지라도 상대는 나를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히 남의 눈에 띄이게 설치다가 오히려 당하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존경쟁에서 남을 앞지르기 위해서는 앞을 내다보면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뿐 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춘 논사는 것을 배아파하기 앞서 축하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내 앞길을 꾸준히 달려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이야기가 잘통하고 또 수준도 비슷해서 일단 걸으려는 무척 친절할 것 같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다 다르면은 슬쩍 외면하기도 하고, 그가 내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호된 실망을 안겨 주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 경험합니다. 결국 이 길에서 너 아니면 나라는 생각때문에 그가 나를 제쳐놓기 위해 힘쓸지도 모르며 내가 그를 떨어뜨리기 위해 애쓸지도 모릅니다. 서로 웃으면서 대하던 사이지만 언제 어떻게 표정을 바꿔 버릴지도 모르는 미지수인 세상입니다.

문화수준이 높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교양이 높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은 간혹 선외의 경쟁을 벌였다 해도 진편이 웃으면서 축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Fair Play 라는 말을 입에 담고 실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끼기는 하지만 아직도 미숙한 탓인지 Fair Play 에 서툰편이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민한 상황 판단에도 서툰만큼 때에 따라서는 상대도 안되는 사람과 헛된 경쟁을 하다가 지쳐서 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지요.

일단 목표로서 점을 찍기 전에 과연 경쟁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검토하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지거나 이겼을 때 Fair Play 를 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하고 판단한뒤에 도전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쉽게 뽑아지지 않고 웬만한 바람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안으로 닦고 연마한 실력이나 기술을 지녔다면, 그리고 그것을 지나치게 내세우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자기를 인정해 주려고 할 것입니다. 어딘지 결함이 느껴지거나 실력면에서 헛점이 느껴질때 도전자의 손은 힘이 더해질 것이 뻔하죠.

남의 눈에 가시가 되지 않는 겸손과 아량 같은 것을 갖춘다면 아무나 함부로 경쟁자로서 나를 해치려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경쟁에서 질 가능성이 적다면 오히려 대결을 피하고 상대와 안심하고 우정을 나누는 관계로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길을 충실히 걷는 것과 선배의 충고라든



지 보호를 받으면서 천천히 자기 자리를 굳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언젠가 자기가 꿈꾸었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확신을 지니고 자신있게 살아나가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경쟁의식이란 우리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힘이기도 하지만요 잘못하면 오히려 우리를 낭패시키기도 하는 원인이 됩니다. 매사에 남을 앞지르겠다고 베푸는 사람들의 사회에서는 경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더러는 모르는 척 하면서도 지기도 하는 마음의 여유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이의 세계와 학생들의 생활, 그리고 사회인들의 소속 단체들 속에서는 반드시 경쟁의식을 지니고 남모르는 암투를 벌이는 사람이 섞여 있게 마련입니다. 더구나 학교 성적이 상위에 속한다든지 주변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처지의 사람들끼리는 남 모르게 대결한다기 보다는 차라리 들어내 놓고 경쟁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쳐서 남의 빈축을 사고 서로가 손해를 보는 일도 없지는 않겠지요. 상대방의 동정을 살피고 사생활까지 문제가 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대결 의식은 지니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에게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무시해 버리는 편이 그리고 자기일에 더욱 성실한 편이 더 유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별 과 想 念

金 貞 旻 ( 6 期 )

- 1 -

포화된 열기속에 한없이 펼쳐진 하늘은 그만 파랗게 질려, 깨어지기 쉬운 여린 꿈의 전신을 담은 채 산마루에 童顏의 미소를 지으며 걸려 있고 증만하게 익어 가는 햇볕속에 푸르름은 더 한층 짙어지고 있다. 비둘기의 나래를 펴고 맑게 빛나는 하늘가에는 어느 누구도 흉내못낼 혹은 名畫속의 신비한 미소조차 맘먹지 못할 만큼 은유함과 화평함이 만연한데 내자신 생각키에도 활짝 트이지 못한 마음 한구석에는 하늘을 탐고 싶던 그 진실이 무엇을 그리도 열망하는지 축축히 슬픈 빛이 어린다. 한낱 현실에서 떠나 아름다운 꿈의 구름을 타고 멀리 남극에라도 떠나고픈 마음은 정녕 혼자만의 생각일 수는 없으리라. 인간의 본질과 생에 있어서의 관념은 혼자라는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안팎을 누가 넘볼새라 튼튼하게 자신이 지어 놓은 울타리 속에서 멀기만 한 하늘을 쳐다 보아야 하는 흡사 두뇌가 발달한 동물은 모두 한 마음 이리라.

그러나 아름다움에서의 느낌이 현실적이기 위하여 또는 어려움을 겪는데서 참된 맛을 알기 위해 애쓰는 한 보

잘것 없는 청년에게 더욱 쓰라린 고독감과 증오를 느끼게끔 하는것은 어떤 이의 섭리인지? 푸르름과 사랑을 한아름 넘치게 담고 있는 창공을 바라보며 실마리를 찾아볼까 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창밖에 보이고 있는 파란 하늘은 티없는 아이들의 瞳孔 과 혈기에 찬 청년들의 꿈과 야망을 송두리째 지니고 있어 파란 구슬속에서 흰연기가 뭉게뭉게 피어 나와 동자의 모습으로 둔갑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에 자신을 잃지 않고 불가능을 없애는 노장군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말이다. 어떤 때는 견디기 어렵도록 뜨거운 여름 하얀 구름과 함께 알꽃게 내리찍는 작열하는 태양을 한 손에 쥐고 무르익는 가을의 열매속에 들어가 알알이 박히는 잉태의 능력을 가진 태양을 또 한 손에 쥐어 대농장의 주인이 되기도 하니 그 주인한테 잘 보이고 싶기도한데 말이다.

그러나 작년 5월 초순 어린이 어버이날로 한참 들쭉날쭉 씩씩 씩씩 동심으로 그려진 동그란 하늘에 하얀 반쪽달이 아직도 서산에서 머뭇거리는 햇님께 예고도 없이 떠올라 나타내지 않는 밝은 미망인의 마음처럼 놓쳐버린 풍선이 되어 모순을 이루었을 때 난 하늘의 비밀을 알아 버렸다. 찬란히 빛나는 금빛 햇살속에 감추어진 사연을 푸르름이 더없이 고조되어 터질 듯이 부

풀었으나 슬며시 하얀 마음되어 병을 앓는 반쪽 달의  
사연을 이렇듯 내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내 마음을 앗아가는 것을.

이따끔 늦게 귀가하는 발걸음에 다투어 가며 비취주  
는 별들의 속삭임을 들을 땐 그들의 아름답고 슬픈  
전설속에 또 하나의 전설을 남기고 싶다. 청아하게  
빛나는 크다란 별이 되어.

- II -

저녁어스름, 내게 주어졌던 낮익은하루가 이제 저 겁  
은 땅속으로 기어들어 가고 있다. 한 울의 아쉬움도  
남기지 않고 일각의 여유도 없이.

이런 즈음 길가의 무료함을 덜어 주는 비쩍 마른  
가지들이 항상 부러움의 대상으로 되어 시선을 끌기에  
지루하지 않다. 역시 지금도 추위는 자신들의 견고함  
과 보다 나은 성장을 위한 도약단계라는 것을 넉넉히  
알리면서 지는 해 속에 얽게 반사되어 얼굴을 붉히기  
도 한다. 나도 버스안의 덥게 달은 공기와 함께 화  
끈 달아 오른다. 주어진 환경을 외면하고 내실을 기  
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의 양심의 불꽃일는지, 고개 내리  
막길에서 별 수 없이 함께 달려야만 하는 이 하루도  
아마 내일은 버젓이 나와 함께 출근할 것이다. 영롱

한 아침 해를 떠올리면서 슬픈 일일랑 기쁜 일일랑  
모두 자기 소관이라는 듯이.

그러나 지금은 밤을 기다리며 오래 전에 나와의 만  
남을 약속한 하늘이 있고 흙과 아스팔트의 조화속에  
이분 문명의 세계가 있으며 그 사이에 놓여진 다리위  
로 이만하면 꽤차치분해도 충분한 다 넓아 빠진 시내  
버스에 전신을 맡기고 있는 내가 있을 뿐이다. 달리  
는 차창에 비쳐진 하얀 그림자는 분명히 퐁퐁 얼어  
버린 셋강의 얼은 화석, 깨끗이 정지된 상태의 차더찬  
그러나 언젠가는 흘러가야만 할 것이기에 그 곁에 하  
얀 疎像이 되어 묶여 버리고 싶다. 아무런 말이나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고 시골 초가지붕처럼 조용한  
가운데 오가는 '바탕결'에나 사랑스런 '모습'으로 단장시키  
며.

어떤 바보가 옆에서 말을 하면 같이 바보가 되어  
말로써 표현키 어려운 인간본연의 슬픔, 일생을 그 순  
간에 두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닌 오히려 가난함에서  
느끼는 희열, 바보가 된 채 변명할 여지를 가졌을 때  
의 수치감, 또한 순수하게 줄 때나 받아 들일 때만이  
알아질 수 있는 샘물같은 인절 이런것 따위나 느끼면  
서.

문명의 이기속에 혹은 열등감이나 우월감속에 포근히

도 감싸여진 진주같은 혹 금강석과도 같은 우리 숨쉬  
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심은 양파처럼 까고 또 까보  
아도 끝이 없고 끝내는 자신을 무능아로 만들기가 일  
쑤다. 누가 감히 자기 자신의 베일을 모두 벗으랴만!

이렇듯 모든 것들에게 팬스레 불만이 품어 질 때는  
서글픈이런 것을 몽땅 삼키거나 할듯 이미 비둘기가  
날아가 버린 잿빛 하늘이 펼쳐지고 우뚝우뚝 솟은 괴  
물스런 고층 건물속에 전류가 연결지으며 여기저기 유  
성이 되어 터져 버릴 즈이다. 웬지 모르게 왈작 울  
음이라도 쏟아 놓아 눈이 삼만해지고 눈알이 토끼처럼  
빨갳도록 시간을 흘려 버리고 싶으나 현재의 이 시간  
과 공간의 제약은 이러한 하찮은 것마저 허용치 않고  
만물의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모  
두들 환기에 차서 기계처럼 활동하기도 하고 계산에  
착오없이 하고자 하는 대로 수행하고 있고 하여튼 잘  
들 해나가고 있는데. ....

이렇듯 주변을 돌아 보며 어찌면 자학이라도 하듯  
한번쯤 삶의 불평 나무라기를 들들 털어 본다. 무슨  
쁘족한 수가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면서 물끓는 주  
전자의 연거퍼 인사간 하는 투쟁과 같이 불가항력인  
나이기에 운명의 여신으로부터 떨어져질 것처럼.

그러나 얼어 붙은 땅속에서도 따스한 봄날 꽃피울

것을 고대하면서 지금은 죽은 듯하나 봄비가 온누리를  
씻겨 주어 새싹이 돌아날 즈음에 보란듯이 무성해지는  
개나리의 마른 가지에서 숨쉬는 소리를 들을라면 무언  
가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다. 쉬지 않고 움직이는  
開花의 집념과 물레방아 힘찬 물소리처럼 생명이 약동  
하는 기다림은 그만 내게서 초연을 부른다. 얼어 붙  
은 땅과 예마른 가지와 하얀 얼음은 채찍은 가졌어도  
휘두르지 못하는 늙은 선생님이 되어버리고 난 거기에  
순종하는 말 못하는 학생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렇듯 바른 자세로 포근한 방안 기온을 피부로 느  
끼면서 어드러한 반응이 있기엔 한참이나 어리석은 자  
신에게 투정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할 뿐인 마  
음으로.

The End.



\* 내가 좋아하는 것들 \*

朴 瀾 香 ( 8 期 )

버스 안, 엄마의 등에 업힌 아기의 까만 눈을 들여다 보는 것을 나는 좋아한다. 세상에 때묻지 않은 순수함으로 가득찬, 까맣게 빛나는 아기의 그 유난히 큰 눈, 그 속에서 난 내 얼굴을 찾는다.

비오는 날, 양천지붕위에 떨어지는 빗 소리를 나는 좋아하고 차창에 내리치는 굵은 빗줄기를 나는 좋아한다. 山行길, 푸르른 숲속에 아련히 피어오르는 물안개는 나를 황홀케 한다.

논두렁, 개구리 울음소리가 한창인 그길을 걷는 것을 나는 좋아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번데기 10원어치를 사는 것을 나는 좋아하고, 아줌마가 파는 아무렇게나 나뉜 놓은 옛 간개를 입안에서 녹이는 것을 나는 좋아하고 따뜻한 군고구마를 가슴에 품고 향내를 맡으며 걷는 것을 나는 좋아한다.

오늘같이 추운날, 호떡 - 입천정이 데일 정도로 뜨거울 때 먹는 것을 나는 좋아 한다.

빈잡하지 않은 平日, 혼자 영화관에 가는 것을 나는 좋아한다. 텅빈 좌석 한가운데에 앉으면 난 「테릴라」



가 되고 Love Story 의 「올리버」와 눈장난을 하고 「제임스·딘」과 함께 고민도 하고 「존·웨인」과 같이 마차에 몸을 싣고 西部의 황야를 달린다.

어느날, 모두가 잠든 자정이 가까운 시간, 내가 열어준 문으로 들어온 오빠와 동이 틀때까지 이야기 나누는 것을 나는 좋아한다.

아름다운 여인의 옆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나는 좋아한다. 화장을 곱게 하고 예비형부와 「데이트」할때의 언니의 모습을 나는 좋아하고 누나란 말이 낯선 “언니 언니”하는 듣직한 내 남동생을 나는 좋아하고 퇴근후 추울세라 아랫목에 옷을 물어두는 귀여운 막내를 나는 좋아한다.

집모퉁이를 돌아설때 들려오는 피아노 선율은 내 발걸음을 주춤하게 만들고 BUS 정류장앞 전측상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음향은 몇대의 차를 지나치게 한다.

밤한 직후의 누룽지-엄마가 끓어준-물 나는 좋아하고 만두가게를 지날때의 그 냄새를 나는 좋아하고 이른 새벽, 소년이 던져준 신문에서 확-뚱겨오는 신선한 냄새를 나는 좋아한다.

낙엽이 타는 냄새를, 시골길의 향토색 짙은 그 냄새(?)를 나는 좋아한다.

까만밤, 온우리가 잠든 시간, 밖으로 나와 별과 눈으로

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나는 좋아한다. 밝게 자신을  
쏟내는 것, 꺼질듯 말듯 가련한 것, 붉으레, 푸르레한 것,  
외로이 있는 하나, 무리져 노는 여럿, 그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나는 좋아한다.

새벽에 들려오는 힘찬 닭 울음소리를 나는 좋아한다.  
해묵은 잡지를 뒤적이는 것을 나는 좋아한다.

잠든 언니와 동생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나는 좋아하고  
선반위에 놓인 갖가지 인형을 매만지는 것을 나는 좋아하고  
방안가득 음악이 흐르는 늦은 밤, 의자에 앉아 명-하니 있는 것을 나는 좋아한다. 켈런더워의  
「르노아르」의 少女像을 바라보는 것을 나는 좋아한다.

웬지 고독을 느끼며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책상위의 나를 찾는 한장의 葉書는 나를 뵈듯이 즐겁게 한다.

전주서 걸려오는 C의 “잘있니?” 한마디는 온종일 나를 들뜨게 한다.

코끝에 와닿는 커피의 내음과 함께 오랜 친구와 팔베게를 베고 마주보며 밤새워 이야기를 나누노라면 난 시간의 흐름을 잊는다.

「바흐」를 「슈베트」를 「비발디」를 나는 좋아한다.  
「닐·다이아몬드」를 「해리베라폰테」를 「존멘버」를

「프란시스테이」의 연주를 나는 좋아한다.

온몸 가득 외로움을 느낄 때 그들은 내곁에서 포근히  
감싸준다. 하늘을 날듯 즐거울 때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내 기쁨은 풍선처럼 커진다. 내가 게을러지려 할 때  
꾸짖어 주는 그들, 비탄에 빠졌을 때 용기를 내라고 손  
잡아 주는 그들.

音樂 ……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 하루 반의 旅行

金 銅 洙

한 주일의 틀에 박힌 생활이 끝나갈 시간이 되면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動搖가 가슴에 고통쳐 온다.

변함없는 일상의 연속에 억눌려 왔던 짜증이 무료해  
진 자신에 대한 분노로 점화되면서 울안에 갇혀 있던  
또 하나의 나는 解放(?)의 기쁨에 한껏 부풀어 결  
실 없는 旅行을 서두르고, 인간이 太初에는 혼자 뿐이  
었다는 해괴한 진리를 앞세우며 멍에 풀린 放從의 想  
像은 가이 없는 時空을 넘나든다.

무지개를 손에 쥐고 금새 웃고 있는 허황한 꿈만을  
그리며, 이 순간만은 현실과 生涯 가득히 짊어진 과제  
를 제치고 오직 행복을 쟁취하는 희열에 몸을 떨면서  
양어깨에 돌아난 금빛 날개를 펼렁이며 훨훨 날아서  
가자! - 저 멀리 하늘 닿는 지상의 끝간 곳, 현란  
한 조명이 속속들이 腦髓를 파고 들어 숨길 할 수 없  
는 非情을 떠나 求道에 지친 육신에 안식과 평화를  
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승화된 生의 찬미가 우러  
나오고 아름다운 입술의 달콤한 속삭임에 靈魂이 飛翔  
하는 세상 저편으로 ..... /

사람이 제 스스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틀”

에 묶여 그 틀에 맞추어 살아가는 작박한 메카니즘의 세계를 벗어나 生의 진정이 항상 곁에 있고 풀어 헤친 마음 가득히 얻은 者가 갖는 여유가 못내 그리워 진다.

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은 쉬임없이 들고 돌을 光明과 暗黒이 회돌이 하는 定理속에서, 永劫을 刹那같이 흐르는 세월따라 이내 어둠에 휩싸여 갈 生의 짧은 굴레에, 본디 인간은 인간 이전의 哺乳動物로서 세홀로 끝간 곳을 찾으려 헤매었지만 결코 그 끝간 곳을 찾지 못한 채 고달픈 放浪의 異域에서 아쉬운 미련에의 一瞥만을 남기며 스러져가야 하리니 하루살이 생명의 불안과 초조에 안타까운 불나비의 저돌적인 돌격을 감행해 본들, 얻은 것은 예까지 오느라 겪은 슬한 고난의 點綴이요, 길 잃은 나그네의 한숨뿐일레 - 冥想에 잠겨 18층 奈落에 휘잉 던져지는 아슬한 꿈을 깨고 돌아보면 어김 없는 시간의 재촉이 바뀌를 굴리고 있다.

부산스레 움직이는 못사람들의 뜻하는 바 모두가 하나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쉬움에 부대끼면서 오늘도 변함 없이 절처없는 放浪의 길을 떠나야 한다. 설사 거기에 더 큰 불행이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宿命의 시간열차에 몸을 던져야 하는거다.

X X X X

가까운 교외라도 나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겨울을  
맞이한 제 빛 잃은 들판의 한숨을 들어 보자!

매연이 亂舞하고 騷音이 龜和되어 질식을 강요하는  
공간을 벗어나 주인없는 신선한 공기를 맘껏 심호흡하  
며 거기 아직도 忍苦의 땀을 흘리고 있는 “마지막  
일새”의 몸부림을 보자!

부드러운 대지의 포근한 애무를 받으며 아득한 옛부  
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온갖 형태의 역사와, 이제는  
지하에 머물며 안식에 젖은 나그네의 한숨 섞인 지난  
얘기를 들으며 너 또한 우주의 顯生일진대, 대자연의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선율을 타고 네 마음속 깊이 잠  
들었던 어릴적 어머니의 보드라운 젖무덤을 생각해 내  
고 동화속의 주인공이 당하는 슬픔에 발을 굴렀던 無  
垢의 자비심을 삭막해진 네마음 가득히 불어 넣으라!

그리하여 이제는, 황혼에 노을진 하늘을 바라보며 내  
일에 밝아올 여명의 시간을 네 편에서 채근해 보는  
거다.

× × × ×

발차시간을 알리는 안내양의 목갈린 호소가 발걸음을  
재촉한다.

지금 이 순간 가야할 뚜렷한 목적지는 없을지라도,

를을 벗어난 기쁨에 즐거워 하며 가다가 내리고픈 어느 낮선 간이역에서 종착없는 生의 변화에 旅程에서 일는 事緣을 아람드리 워어 가면서, 수줍은 처녀와 기약없는 내일을 소곤거리고 秘藏의 그곳 향토주를 음미하다가 불현듯 잊혀진 또 하나의 나를 찾아 현실에의 帰家를 서두르자!

비록 짧은 하루 반의 여행이지만 내일은 오늘같은 彷徨이 아니어야 하니 소망실은 열차의 움직임이 숨가빠 온다.

× × × ×

\* 第3回 定期總會 消息 \*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2시 國會公務員研修院綜合講義室에서 41명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會務報告 財政報告 決算承認 및 監査報告가 있었고 이어서 77年度에 본 동문회를 이끌어 나갈 第3代 任員陣을 選出하였다.

특히 이 자리에는 總會始作부터 지켜 보시며 祝辭를 해주신 金鎭基顧問과 崔錫模 大韓速記協會理事長 및 여러 養成所講師가 자리를 같이해 總會를 더욱 빛내 주었으며 1時間餘에 걸친 定期總會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끝나자 곧 이어서 조출한 茶葉會가 국회 구내식당에서 배풀어졌다.

## 有志者事必勝

世寶 李 泰 鎬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사랑이며 가장 값진 것은 행복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은 이성과 智慧란 위대한 과학자나 예술가들은 인내와 신념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까지 인류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으며 훌륭한 정치인들은 지혜와 성실을 총동원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모든 위대한 업적과 역사는 땀과 눈물과 피와 노력이 합쳐져서 하나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처럼 우주의 신비와 섭리도 자연의 법칙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듯이 우리는 우리나라의 주권과 독특한 개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생애를 엮어 가면서도 후회없는 삶을 살려고 온갖 정성을 다 쏟고 있는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는 것과 같이 뜻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길이 있다. 비록 시행착오가 있고 피로가 있고 패배와 실망이 있겠지만 이것들은 인간의 머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직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적 마음가짐이다. 특히 동양철학자들은 인간의 사고와 정신에 큰 비중을



두고 論했으며 그중에서도 자아를 제일위에 놓은 것을 보더라도 자신의 마음가짐과 건전한 思考方式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더 거론할 여지조차 없을게다. 그러면 위에 것들보다 더 더욱 중한것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속세의 보잘것 없는 범인으로서의 감히 엄두도 못낼 속제인것 같지만 해답은 간단하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克己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茫茫大海에서 希望峰을 찾았던 개척자들도, 예비고사나 시험에 몇번씩의 쓴잔을 마시고도 실망하지 않는 젊은이들도 모두가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자격만 갖추었을 따름이다. 우리는 마음 속에 자기나름대로의 선을 정해 놓아야겠다. 그 선은 가늘어도 좋고 짧아도 상관없다. 그러나 그선을 따라 생활해 나가는 生活信念은 한가지여야한다. 우리의 주변에는 술한 사연과 애환도 많고 눈을 감아 버려야 할일도 많다. 눈과 입을 두고도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현실을 부정하면서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사랑도 행복도 다 좋다고만 말할 수 없듯이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다. 한강변에 있는 수 없이 많은 모래알들중에서 똑같은 두개를 쫓아오라고 하면 아무도 못 주어 올 것이다. 하물며 이성과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똑 같을 수 있겠는가? 감정의 내립, 갈등, 모순, 등등 있을 수 있는 잘못이 허다하다. 너무

나 많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덮어두는 것이 차라리  
마음 편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인간적인 모든 것을 道德과 倫理라는 베일로  
덮어 씌워버리고 사랑의 방랑자나 철학의 나그네가 되는  
일도 많다. 자기 생각대로만 그저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을 때는 분명히 자아를 찾게 된다.  
그리고 의지를 바탕으로 목적 의식을 확립하게 된다.  
목적이 없는 인생은 있을 수 없다. 깊은 山寺에서 오  
묘한 生의 철학을 탐구하고 내세의 열반경지를 향해 앞뒤도  
돌아보지 않고 苦行을 하는 수도승이나 그리스도의 복음  
을 온누리에 전하고자 외치는 선교사들의 목적은 전 인류  
에게 사랑과 자비와 행복을 주는 것일제다, 이러한 목  
적이 없다면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서로의 벽을 헐고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끝없는  
인간미와 정을 쌓아가야겠다. 그러다 보면 잘못도 있을  
수 있고 오해와 겨짓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되풀이  
해서 반복하면 용납될 수 없게 되는 것이 인간사회다.

희망과 젊음과 사랑이 평평 쏟아질 수 있는 샘을 파  
고 그 샘물에 속세의 더러움과 마음의 병을 씻어버리자.  
그리고 한가지 뜻을 가지고 길을 가자 “有志者 事必勝”  
이 말은 “뜻을 가지고 있는 자는 기필코 무엇인가를  
이루고야 만다는 것이다.. 우리는 매년 새로운 작오와

계획으로 뜻을 세우고 새로운 한 해를 장식하려 저마다 노력하고 힘쓰고 있지만 한해가 다 지나가는 연말에 와서 돌이켜보면 모두 헛되게 보낸 것 같게 된다. 사람의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에 충족을 느낄리가 없다. 참 삶을 사는 것은 거짓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거짓과 교만과 불손을 뿌리뽑고 겸허한 자세로 평범한 진리를 배우면서 일해야 한다. 현실을 똑바로 볼 줄 아는 눈과 선악을 가릴 줄 아는 선별력이 풍부하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살찌게 되며 여유가 있게 되는 법이다.

모든 일에는 고동과 괴로움이 따른다.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을 오르는 농부들의 구슬땀에 여미는 착한 행복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 덕망과 학식은 노력의 댓가며 결코 머리카락이나 우연의 부산물은 아니다. 근원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강물이 있는 곳에는 필히 샘물이 있게 마련이고 또한 강이 흐르는 곳에는 바다를 이루는 요소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도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헛된 妄想을 하고 있다. 이상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패기와 용기를 재산으로 현실을 타개해 나가자. 우리의 조그마한 현실 사회로 눈을 돌려보자. 조그만 테두리 속에서 그저 남을 비판하고 반목질시하는 풍조가 짙아서 포화상태에

있다. 사랑으로 잘못을 어루만져 주고 관용으로 더러움을 감싸주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것들, 아름답고 좋은 것들, 최상의 것만을 모아 정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인간의 모순을 논하지 말자. 인생은 그저 사는것이 아니다. 그리고 젊음은 언제나 있는 것도 아닌데 오늘의 젊은이들은 오염된 사회속에서 때묻은 사랑과 서글픈 情을 스스로 자초해서 쌓아가고 있다. 창조는 모방이 있을 후에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잘못을 보아야만 자신을 보완하는 창조의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 인간의 필연적인 조건이라면 웃고만 넘길 수는 없다.

잠시 동안이라도 눈을 감고 자신의 뒤를 살펴 반성해 보는 시간의 여유를 가져보자. 후회없이 살아왔는가? 남을 위해서 일했는가? 자신에게는 충실했는가? 그리고 神의 뜻에 따라 살았는가? 틀…… 그 다음은 가장 잊어버리기 쉬운 마음의 線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그어져 있는가를 확인해야만 된다.

한가지 대망을 품고 그 길만을 향해 쉬임없는 노력으로 성실을 다해 달릴 수 있는 철학과 지혜를 배워야겠다. 어떠한 여건이나 환경속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선을 그으면서 ……

## 失 戀 記

金 致 元 ( 1 期 )

그애가 내게 접근해 온 수법은 빈틈없는 것이었다. 그해 봄 학기가 끝날 무렵 나는 가정교사 자리를 찾는 광고를 그때 돈 이백원 주고 신문에 냈다. 대학생으로서 가정교사 노릇은 추세넘은 짓이라고 나는 여기고 있었지만 돈이 궁했다. 누구를 가르치기에는 아직 어리다. 사람들에게 꺼병하게 생겼다는 말까지 듣는데 있어서라. 그러나 학기말 시험을 치르고 곧 방학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놀 수만은 없는 처지였다.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부모님한테서 등록금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한 과의 세현이가 신문사에 가자고 제의했다. 그래서 세현네집 전화번호를 한줄짜리 광고에 적어 넣고 다음날 어디서든 연락오기를 기다렸다. 효과는 빨랐다. 몇번인가 전화가 왔다. 모두 세현이 받았는데 그중에서 나는 십자병원 근처에 있다는 집으로 가 보기로 했다. 우리집이 바로 거기서 가까왔기 때문이었다. 병원에서 한강쪽으로 내려가다 들췌 골목 어귀 은다방에서 만나기로 약속은 세현이 했지만 만나진 못했다. 나의 핸드캡인 얼면 인상을 지우고자 학생답잖게 머리

가름을 타 빛고 밝은 남방을 입었는데 오러려 촌놈이  
발한 모양이 돼버린것 같다. 은다방엘 가니까 중년 아  
주머니가 소녀들 뒤에 달고 나타났다. 이런 인연도 있  
는가 하고 나는 소녀의 얼굴을 보고서 탄복했다. 그자  
리에서 윤희라고 소개를 받음으로써 이름은 처음 알았지  
만 얼굴이야 진작부터 친숙하지 않았던가? 소녀와는 등  
교길에서 아침마다 만났으니 말이다. 나는 시끄러운 한  
길을 피해서 시간은 좀 더 걸리더라도 깨끗한 주택가인  
십자병원 뒷길로 다니는 버릇이 있었다. 아마 고삼때  
부터였으리라. 늘 이길을 가면서 단어를 암기했으니 한  
꼬마 여학생과 지나치곤 한다는 사실조차도 나중이야 알  
게 되었다. 시험공부에 미쳐서 얼빠진 얼굴로 입속으로  
는 연방 뭔가 중얼거렸던 거다.

덕분에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도 그 길을 애용했으며  
어떤 소녀와 아침이면 마주친다는 일상적 사건도 이래서  
이어졌다. 이런 일에 어떤 개연성이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해 본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조용하고 깨끗한 세이브먼트를 밟을 때에는 소음의  
한길에서 보다 사색을 가꿀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이러한 기대와 즐거움 속에서 아침마다 그 애들  
만나는 것도 그러한 기분을 더 하여 주는 것임을 느끼  
기도 하는 것이었다. 어느날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애와 마주쳤다. 갑자기 더워진 봄날이었다. 집집마다  
 담장 너머로 개나리들이 샛노란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애는 가방이 무거운지 얼굴이 발그레 해가지고 걸어  
 오고 있었다. 그때 나는 그애가 귀엽고 또렷하게 생겼  
 다는 것을 관찰해냈다. 아는 체 해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눈질이 부딪히기를 기다려 윙크를 보냈다.  
 그리고는 어색한 짓을 했다고 자신을 나무랐다. 그애는  
 한층 더 빨개지면서 걸음이 빨라졌다. 다음날인가 다시  
 만났을 때 나는 또 그 짓을 되풀이했다. 왜 서투른  
 짓을 자주 할까. 그러나 예기치 못하게도 그애도 같이  
 윙크를 싹 하는 거였다. 그리고 도망치듯 지나갔다.  
 “하!” 나는 잠시 얼떨떨해진 차진을 수습하기에 급급  
 했다.

×                    ×                    ×                    ×

“아는 체 하지 말아 주세요” 윤희는 눈짓으로 그렇  
 게 말했다. 그래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윤희 어머니한테  
 구두시험을 받았고 고용이 되었다. 다음날부터 윤희  
 한테 갔고 우리는 오누이처럼 다정해 졌다. 재미있는  
 우연이라고 말했더니 윤희는

“세상에 우연이란게 있을까요?” 라며 씩 웃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일주일도 지난 뒤에야 알게

되었다. 당시엔 혜화동 로터리에 큰 빵집이 있었는데 이름은 모르겠지만 지금도 있는지 그리로 나를 끌고 갔다. 거기서 나는 세현이를 또 우연히 만났다. 하지만 세현과 윤희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실은 그들이 이렇게 만나기로 약속해 놓은 일이었음을 곧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윤희한테 고용되기로 각본은 꾸며졌던 일이었다. 고삼때의 나의 명찰로부터 그애는 내 이름을 기억해 두었다. 다음에는 나의 대학 배지들 보고서 친구 오빠들을 통해서 나에게 대한 몇가지 정보를 얻어내고 세현에게 접근했다는 것이다.

“너도 어려운 아이다. 벌써부터 제략꾸미기를 좋아하니 뭐가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 일이 있는 후 부터는 내게는 사랑스런 요정처럼 보였다.

“오빠” 그애는 나를 불렀다. “약간 모자라 보이는게 내맘에 들었다구. 내가 바라는 건 공부들 도와 주는 것보다 살아가는게 뭘지에 대해서 많이 듣고 싶어요.”

이애는 이렇게 어려운 주문을 내놓는 것이었다.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아니? 그런 걸 알려고 하면 빨리 물어.” 내가 그래도 그애는 진지하게

“앞으로 계속 나의 조연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싶은데……” 이런 정도로 나온다. 나도 “넌 똑똑한



언제 내가 무슨 도움말을 줄 수 있겠니, 오히려 내가 배우겠는 걸” 무언가 이런 종류의 대화로 시간을 많이 보냈다. 윤희는 워낙 공부를 잘했다. 학습은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진행되었다. 그점에 있어서도 나는 그에게 큰 도움이 안 되었다. 그애의 내면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무엇을 보게 될 때면 더욱 자신의 무능만을 확인할 뿐이었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나로서는 갖지 못한 것이었기에 애착은 그만큼 커져 가는 것이었다.

윤희의 또 하나 좋은점은 노래를 잘 부를 줄 알았다. 잘 부르기도 하고 노래를 많이 알기도 했다. 학교에 피아노 반주를 해 주는 친구가 있어서 노래를 즐겨 하는 동안 조금 늘었다고 했다. 우리 가곡을 많이 부른다고 했다. 나도 몇곡을 배웠다.

“초동은 발걸고 처너는 네짜서

기쁘게 살도록 오라 내사랑아” 하는 가사는 지금도 내 머리속에 남아있다. 내가 그것을 익혀서 부르고 나니까 감동적이라고 논평해 주었었다. 노래 잘 한다는 소린 처음 듣는다니까 “그리 잘 못해도 감동적일 수는 있다”고 말을 했다.

여름이 지나고 윤희한테는 더 가지 않게 되었다. 그 뒤로는 특히 드물게밖에 만날 수 없었다. 집으로 놀러 오거나 학교로도 한번 찾아 왔었다. 잊어 버릴만 하면

한번씩 만났다. 우리는 더 가까이 지지도 멀어지지도 않는 사이를 지켜왔으나 나로서는 다른 이성들에게서는 윤희에게만큼 심령이 부딪히는 경험은 하지 못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심령은 힘차게 자라나고 있었다. 아니 그 몸도 자라고 있었다. 반면에 나는 이미 성장이 끝나고 정제된 인간임을 의식하기가 두려워 졌다. 나의 내면의 가능성은 고갈해 버렸는가 잠재력은 소진된 것이 아닐까 불안해 했다. 뭔가 이런 작성을 하게 된 동기를 윤희와의 만남에 돌려도 좋으리라.

한때도 나는 아직 위선자였다.

그녀는 만날 때마다 세월만큼 아름다워져 갔다.

몇년 뒤 완전한 숙녀가 된 모습에 그녀는 내것이 되어야 한다는 욕망을 다짐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집안 형편이 다소 어려워져 대학을 단념하고는 C그룹계의 회사에 들어갔다. 이때도 예의 그 활동력과 수단을 발휘했었던 것이다. 모르긴 해도 그 말을 들어보면 회사 내에서 높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자리로 들었던 것 같다. 나는 은근히 신경을 쓰며 그녀의 직장생활을 캐내려 했다. 그녀에게 애인이라도 생길까봐 조바심하며 나는 내 소망을 손에 붙잡고자 어리석은 계획을 짰다. 저절적으로는 공략될 수 없는 城이라고 나는 단정하고 그것은 이때까지 쌓아놓은 탑을 흔들어 버리기 쉬우니까..

먼저 그녀에게 합당한 인간이 되어야 했다. 윤희는 생활력이 강하며 수완을 갖춘 여자다. 그렇게 단정하고서 성격과 취미 생활방법에 이르기까지 면밀히 살폈다. 나는 그보다 더 세련되어야 하리라. 그런 면에서 모자라는 사교성을 닦으며, 인간관계의 도사가 되려 했고, 화제를 풍부히 만들었고 설득력을 터득하는 훈련도 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앞으로의 생활을 위한 것이었지만 의식의 저변에는 늘 윤희의 그림자가 따랐던 것이다. 음악을 취미로 삼게 된 것만 해도 그랬다. 그녀가 음악을 좋아하는 줄 알고 그때부터 나도 열심히 들었다. 그리하여 지금은 아는 척 할 만큼 되어 「왕궁의 불꽃놀이」에서 「칼 오르프」의 「칸타타」에 이르기까지 퀴즈쯤은 맞출 수가 있다. 고시에 열을 올리게 된 것도 그녀로 부터 받은 활력소가 나의 의지 속에서 꿈틀거렸기 때문이다.

행정부의 모 부처에 발령을 받은 다도 한 인간으로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이제 무드가 이뤄지면 고백하리라. 어느날 외국 실내악단 초청 연주회에 우리는 갔다. 기회만 오면 나는 하고싶은 말을 꺼내리라. 그런데 그날 윤희는 내게 좋았느냐고 물었다. “아주 감동적이었다고 생각해” 하고서 내가 더 논평을 하려하자 “감동적이었다구? 내가 보기에 별로 감

동하는 것 같았는데”

“……………/”

“세련미에 대해서 감탄한 것이겠죠. 옛날에 우리 집에서 서투른 노래를 부를 때가 훨씬 감동적이었어요. 당신은 감동하지 않고 있어요” 이 말을 하고 그리고 아무말도 없었다. 기대와는 달리 어색하게 헤어졌었다. 나는 그걸 모르고 있었다. 공감의 불꽃이 꺼졌던 것이다.

그런일이 있었지만 더 빨리 만나고 싶어진다. 구겨진 베를 얼른 펴고 다시 밝은 얼굴을 대하지 않고는 못 견딜 것같았다. 그러나 그 만남이 마지막이 된 것이다.

“여태까지는 윤희를 바라고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거야. 네게 합당한 인간이 되고자 난 애썼던 거야”

“모두 알고 있어요. 저 역시 그랬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서로 모방하려 했던것이 우리를 변질시켰어요. 당신은 예전의 명칭한 얼굴이. 훨씬 좋았는데 ……순수를 다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녀의 눈망울을 차갑게 빛났다.

윤희의 말은 옳았다. 그녀에게는 순수함이던 것이, 나에게서는 순수치 못함이었다. 헤어지는 아픔으로 그걸 깨달았으니 나는 실연당함으로 사랑받은 셈일까 ……?

## 그 女 子 는

김 은 속 ( 4 期 )

그 여자는 요사이 몹시 늦잠을 자고 있었다. 늦잠을 자는 것은 그 여자가 이 곳 바닷가에 온 목적의 하나였기 때문에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을 예고해 주는 듯하여 그 여자는 내심 기뻐하고 있었다.

봄빛이 항거할 수 없이 밀려드는 자리에 누워 그 여자는 자신의 내부에 생성되어 오는 신선한 공복감을 느끼는 것이 좋았다.

그 여자가 두고 온 생활처럼 시간과 시간에 쫓기지 않고, 피로가 완전히 풀린 다음 느긋한 여유 속에서 일어나는 것과 일어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여자는 또한 좋았다.

정말 일어나고 싶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생활을 그 여자는 항상 얼마나 원하여 왔던가!

그것야 이제야 실현된 것이다. 이 바닷가 휴양지에 와서야 그 여자는 완전한 자유 속에 놓인 듯한 충족감에 사로 잡히게 되었던 것이다.

그 여자가 지루한 꿈과 권태깃든 수면에 빠져 있을 때에도 바깥 세상은 여전히 쉬지 않고 제 할 일을 하고 있었다. 그 여자의 몸 속에서 모든 신경과 세

포가 살기 위해 움직이듯이, 이 지구도 또 우주도 잠시의 멈춤도 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었다.

지구의 북반구에 봄이 찾아왔다.

봄은 그 여자가 머무는 이 조그만 바닷가 휴양지에도 찾아와, 휴양지의 녹지대는 온통 싱싱한 연록색으로 덮혀 있었다. 대지의 어디서고 끈질긴 생명의 움은 돌아나와 잎을 키우고, 또 꽃을 피웠다. 파아랗게 새로 피어나는 듯한 바다빛은 봄햇살 아래 더욱 눈부셨고, 오들오들 떠는 感受의 하얀 손짓을 해변으로 끝없이 내젓고 있었다.

자연은 게으름을 모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여자가 머무는 여관의 사람들도 몽땅 깨어나 시원한 우물물로 씻고, 달콤한 공기를 폐 깊숙히 들이마셨다, 내뿜고, 맛있는 아침들을 먹고 있었다.

주위 세계가 모두 합세하여 자기만을 따돌린다는 느낌이 들자 그 여자는 도저히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먼저 만만한 햇살에 아부라도 하듯 창을 활짝 열어젖히는 것이었다.

창 밖을 거니는 사람들, 그 뒤를 따르는 털이 포오얀 강아지, 연한 풀을 콧코 꼬아대는 샛노란 병아리, 어디에고 할 것 없이 그 여자는 무조건 「안녕!」을 외치고 싶다.

이 곳에 와서 그 여자는 순수한 배고픔을 경험하였다.  
참기름으로 무친 불나물과 조개나 생선으로 만들어진  
늦은 아침을 맛있게 먹고 난 그 여자는 곧장 바다로  
향한다. 가까이 보이는 바다로 부터는 온 몸에 스물  
스물 이는 아지랑이에 몸살하는 듯한 신음 소리가 들  
려오고 있다.

그 여자가 전될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바다를 향  
해 떠날 때 주위는 끈끈한 긴장 속에 있다.

연한 봄풀 밑에선 긴 동면으로 부터 소생한 갖가지  
생물들이 그 생명을 존속시키기 위해 서로 열심히 살  
고 있다.

연분홍, 연보라빛의 작고 방울방울 풀잎에 위태히 맺  
혀있는 풀꽃들은 모조리 일제히 웃음의 바구니를 펼쳐  
공중에서 뿌리고 있다.

질은 봄의 유혹에 미친 나비와 벌들은 어디에 정착  
할 줄을 몰라 공중을 부산히 왕래하며, 정작 도달할  
것에는 가닿지 못한 안타까움이 현란하다.

그 봄 속을 걸어가는 그 여자의 잘 감겨진 긴 머  
리카락 위로 햇살은 「이 때다」 하고 아낌없이 쏟아져  
내리어, 그 여자의 머리카락은 눈부신 행복에 젖는다.

그 여자가 그의 젊은 육체를 감싸고 있는 웃은 작  
은 꽃무늬 원피스로서, 그 여자에게 잘 맞고, 주위의

풍경과도 조화되어, 이따금 눈 먼 벌들이 그 여자의 근처에 와 그들의 방황에서 깨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가운데 그 여자는 길을 걷고 있지만 다른 이가 볼 때 혹시 그 여자의 산책을 「외롭다」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그러한 우려에는 나도 충분히 공감이 간다. 그것은 아무도 그 여자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왕 내킨 김에 그 여자의 비밀을 살짝 공개하자면, 그 여자의 애인은 태양이라는 것이다.

봄 날 푸른 하늘 저 높이에서 이글이글 불타는 젊 은 청년 아폴로가 그 여자의 애인이었다.

그 빛은 마주볼 수 없는 위엄과 광채 속에서 사물을 밝혀주며, 그의 뜨거운 열기는 그 여자의 전신을 충족되게 하는 것이었다.

그 여자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선 이쯤 해 두자.

드디어 그 여자는 바닷가에 다달았다. 바다를 보는 순간 그 여자는 참을 수 없는 질투에 온 몸이 타올랐다. 잠시 숨조차 멎을 지경이 되었다.

지상의 그 어느 곳보다도 바다는 태양과 밀접하였던 것이다.

바다는 하얀 거품을 드러내며 청순하게 웃고 있었으



며, 모든 것이 환짝 열려있고 끈기있게 흡수하고 있었다.

모래사장에서 맨발이 된 그 여자의 결심을 누구도 바꿀 수 없었다.

그 여자의 희고 투명한 발은 순식간에 물결 위를 스치고,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다. 그 여자가 어디에 있는가 한참 두리번거리고 찾아보니, 멀리서 갈매기 한 마리가 마치 바다를 내려다 보며 정찰하듯이 날아오는 것이 보인다.

끼룩 끼룩 싫고 그러나 의지짓든 울음을 울면서 갈매기는 바다 위를 날아오더니, 갑자기 그 날렵한 몸을 위로 솟구친다. 무수한 빛살이 쏟아져내리고 있는 저 공중 어느 지점까지 목숨을 걸고 비상하던 갈매기는 결국 우리의 눈에선 사라지고 만다.

과연 갈매기는 태양을 만났는가?

x            x            x            x

물시 무위에 시달리게 되는 날, 바깥이라고 내다보면 하늘이 온통 답답한 잿빛 구름에 덮혀 있는 날, 나는 가끔 이런 시의 '상상'으로 그 시간을 건너어 보고 있다. 여러분도 마음 내키면 한 번 해보라 한 번쯤 갈매기가 되어 보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 겨울비와 노인

이 주 성 ( 7 期 )

겨울인데 비가 온다. 도대체가 여름엔 비오고, 겨울이 되면 눈이 오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12월도 중순인데 이른 아침부터 소나비와 비슷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다니, 요즈음의 날씨는 계절 감각을 잃었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기형인 우리의 세계는 기형적인 것을 자꾸만 생산하고 있다.

오늘도 그 노인은 출근이라면 묘하나 손수레를 찾으러 보관소로 향하고 있었다. 방금 집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하나 밖에 없는 아들녀석이 등록금을 달라고 하도 조르기엔 군밤을 매겨 옥박지르니까 아버지를 향해 소리를 뽕뽕 질러대는 것을 못 들은 척 그냥 나왔다. 짹짹한 기분은 우중충한 날씨와 더불어 운수사납게 시리, 번두리 진랑길을 왼쪽군화 끝으로 스며드는 물을 의식하여 그의 짙름발이 아내가 걸듯, 뒤뚱뒤뚱 병신같은 걸음걸이로 가다 뒤로 나자빠진 것이다.

노인도 확실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어린 나이로 의지할 곳 없는 고아가 되어 배운 것없고, 기술없는 그가 할 것은 날땀팔이 밖에 없었다. 뒤늦게 자주 가면 대꽃집 아줌마의 소개로 거기에 식모로 있는 지금의

소아마비에 걸린 아내를 맞아 장가잡시고 들었고, 자식놈 하나 얻었으나 이 녀석이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아버지를 우습게 아는지 걸핏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 있소 다른 사람을 보시오. 무능한 아버지”라는 그럴듯한 얘기만 해 아버지 체면이 말이 아니다. 더구나 나이 50을 넘어가니 그렇게 팔팔하던 기운은 어디가고, 막노동은 힘들었다. 생각끝에 몇년 전부터 한창 수지가 맞는다는 옛장사를 시작했는데, 근년에 이르러 옛장수도 많이 늘어 그것이 통 시원치 않은 것이다.

남들처럼 “옛 사시오” 목청 췌 용기없이 착하기만한 그가 겨우 벌어들이는 돈으로 사실이지 중학교에 자식놈 보내기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그래도 자신이 못 배운 한을 자식에게는 써우지 말리라 죽을 고생을 하는데, 밤새워 공부해도 모자랄 자식놈은 벌써 싹이 노탕다.

언젠가 학교에서 아버지 오시랴라고 하여 세탁소에서 빌려온 양복입고 허둥지둥 뛰어가 “웬일이요” 물어보니 담배를 피웠다나, 50넘은 애비도 안피는 담배를 글썽 쪽대기에 피도 안마른 자식이 변소에서 피다 걸렸단다. 덧붙여서 “집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성적이 형편없어요.” 그가 바라는 방향과 정 반대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아마 녀석이 노인자신의 5분지 1만 닮았어도 그렇지

는 앓을 것이다. 하기야 아내가 낳은 것은 결혼한지 8개월째였다. 굳이 따질려면 따지겠지만, 귀찮기도 하려니와 그 보다는 두려운 생각이 앞서는데야 “실마” 자위를 하며, 이만큼이라도 키워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아침의 일만 해도 그럴지, 보통아이들 같으면 아버지께서 돈없는 난처한 표정을 지을 때, 재빨리 알아차려서 비록 학교에서는 모진 시달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집에다 내색을 안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래저래 마누라 복이 없는 사람은 자식복까지 없나보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다. 물론 이런 일을 처음 당하는 것은 아니다. 허나 남들은 순경이 온다는 신호에 우루루 좁은 골목으로 빠져 달아나고, 아침의 출근길(?)에 넘어져 발목이 뻐 그는 발만 동동 구른 채 파출소에 끌려가 짧은놈한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구류 안산 것만 다행이라 벌금 5000원을 사정사정 깎아 2000원 내놓고 나올 수 있었다.

“재수에 옴 붙었군” 투덜거리며 시장 한 복판에 막 들어섰을 때다. 돼지처럼 두꺼운 입술을 가진 20세 안팎의 청년이 그의 손수레위에 놓인 깨엿 두어개 집어 물고는 별 소리없이 지나가는게 아닌가.

그는 동명스럽게 남의 엿을 왜 돈도 내지 않고 먹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멧돼지 같은 청년은 “나요?”

하며 사뭇 시비조로 그의 앞에 다가왔다.

“돈을 내야지, 젊은 사람이 그러면 되나? 우리는 이  
걸로 장사하는 사람이야” 자기의 장한 아들을 연상하여  
훈계조로 말했다.

“그까짓 거 한 조각 먹었다고 너무 그러실 건 없잖  
아”

“그 따위 말버릇이 어디 있어! 어른한테”

“어디 있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순간 노인은 왈카 화가 치밀어 올랐다. 다시 아들의  
얼굴이 보였다. “어느덧 그들 주위에 사람들이 원을 형  
성하여 돈 안내고 보는 스릴 넘치는 쇼를 기대함에 찬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이놈!” 그는 멧돼지의 벽살을 잡았다.

“너는 애비에미도 없니?”

“뭐 이렇게 다 있어!”

멧돼지는 벽살잡힌 손을 떨쳐버리고, 발로 손수레의 옆  
판을 힘있게 찼다. 몇개의 옆이 질퍽한 시장바닥에 떨  
어졌다. 그는 잠시 넘어질 듯 하다가 바로 몸을 지탱  
하는 대로 멧돼지의 벽살을 잡으려고 달겨들었다. 그러  
나 손이 멧돼지에게 채 닿기 전에 왼쪽 볼에 둔탁한  
소리가 나며, 뒤이어 비틀거리던 노인은 쓰러졌다.

이번엔 아침에 넘어진 것과 성질이 달랐다. (일어나야

한다. 저런 놈을 가만 두면 안된다) 그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뱃돼지는 좋아라고, 손, 발, 머리까지 동원해서 늙은이를 늘씬하게 패대었다.

그때 주위의 많은 구경꾼들은 그것을 즐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누운 늙은이를 그렇게 만든 젊은놈이 나쁜 놈일 거라고 여기고는 있었지만 그것 뿐 이었다. 누구하나 정작 가로막는 사람은 없었다.

영광스런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평화를 지독스럽게 사랑하는 이 민족, 수 많은 선현들이 피흘려 지켜준 덕에 제 땅을 차지하여 위태위태 살고 있는 여기의 자손들은 허만 끝끝 찰 뿐 난폭한 폭군앞의 저 불쌍한 늙은이는 이제 꿈틀거리지도 못하고, 생선찌꺼기와 배추잎사귀 나부랭이가 비에 섞여 더러운 시장바닥에 아/ 비에 젖은 낙엽처럼 팽개쳐 있는 것이다.

구경꾼들은 가버렸다. 막내린 쇼를 더 이상 지켜 볼 필요가 없었다. 노인이 몸을 일으키려 머리를 들었을 때 뺨위의 눈물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피였다. 노인의 눈에 담배를 피고 있는 애송이 아들녀석의 모습이 떠올랐다. 절뚝거리며 싸돌아다니기에 바쁜 아내의 얼굴도 보였다.

다시 비가 내린다. 어둠이 깔린 시장에 괴상한 겨울비가 음흉하게 끈적이며 떨어지면서, 노인 얼굴에 묻은 피를 씻겨 내린다.

× × × ×

사람들의 자기만족보다 人間完成에 있어서 더 해로운 것은 없다.

만일 우리가 우리들이 보다 좋은 사람이 되었음을 인식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전혀 진보하지 않았거나 혹은 후퇴하고 있는 증거인 것이다.

자기는 남보다도 우수하다. 자기에게는 남에게서 볼 수 없는 수두룩한 善行이 있다. 이러한 생각을 조심해야 한다. 세군의 善行이 아무리 훌륭한 것일지라도 만일 세군이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價值도 없다.

最高의 完成에만 자기를 비겨 보라. 세군보다 못한 것은 모를.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못하다.

진리와 영원에의 入口는 낮다.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만이 이 전당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 톨스토이의 人生錄에서 -

## 과 도 기

정 명 순 ( 명예회원 )

주기적으로 찾아드는 토요일, 사실 나는 그날그날이면 무엇을 할까 하고 자주 망서렸다. 그러나 오늘은 종종 걸음으로 나르듯 차를 탔다.

이 친구는 내마음속의 것을 세 것인양 그대로 말하던 적이 많았고 같이 공부를 할 적엔 오기와 격려와 즐림, 만류, 우김, 체념 등으로 뒤범벅이 되었던 아이였는데 오늘은 그애를 아주 오랜만에 만나기로 한 날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

얼어 붙었던 도시의 빌딩이며, 바람에 꺾여진 나무가지, 이따끔 비치는 가는 햇살조차도 야릇한 생동감을 가지고 창밖으로 지나갔다.

그런데, 그간 나는 너무나 멍청했다. 무엇을 하느라고 버스만 잠깐 타면 될 거리의 친구를 멍멍히 잊고만 있었나 싶었다. 아무쪼록 나는 개와 다시 만나 실컷 웃고 떠들면서 그간의 일들을 낱알이 얘기해 보고 싶었다. 아니, 우선 집주위를 구경하고 닭의 모이도 주고 싶었다.

그 애의 주소는 북한산을 바로 넘어 「경기도 고양군



○○동 ○○번지 개울 건너 주소만 보아도 얼핏 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담도 없는 조그만 집이다.

그러나, 마루에서 개를 본 순간 너무도 얼굴이 빨스  
해지고 허여밀그레한 것에 지금까지 내내 가졌던 망연  
한 기대감, 이런 것이 달아나 버렸다. 얼마 후에 불  
○○고사 때문에 오랫동안 책더미 속을 헤맸고 신경  
성 위장병 때문에 유동식이를 한 때문이라 했다. 힐  
끗 보아 운동 부족증 환자감이라도 보였다.

나는 좀 서먹해짐을 느꼈다. 잊은듯이 있었던 오기  
가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였는지는 몰라도 별다른 계획  
하나 없이 편편히 생활해온 그간의 날들과의 거리감이  
알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초연함을 잃지 않았다. 시간이 벌써  
나의 세포수를 증가시킨 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 애착심까지 희미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개는 겨울 햇살에도 눈이 부시는 것 같았  
다. 이 밝은 날에 ……… 나는 칙칙한 방에서 나와  
주위의 산을 오르자고 했다. 처음 개는 좀 절뚝이면  
서 걸었다.

얼마전에 온 눈으로 아직까지 여기저기 눈으로 덮여  
있는 곳이 많았고 49년만의 추위로 개울의 물도 팽팽  
얼어 붙어서 꼬마들이 얼음을 지치고 놀고 있었다.

효자원이라는 나무시장을 끼고 계곡을 따라 오르면서 얼음위를 갈러도 보고 미끄럼을 타다 유난히 이상한 모양으로 얼어 있는 바위밑을 팡팡 구르다 개는 양쪽발이다. 얼음 밑을 흐르는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다. 양지쪽의 바위에 앉아 개의 양발과 바지를 말려 주면서도 신나게 썰매를 타며 노는 꼬마들처럼 필적떨적 뛰어 보고 싶어 했다. 이미 흘러가 버린 일들이지만 발끝부터 솟아 오르는 아쉬움, 그 터질 것 같은 기억들이 일일이 생각났다.

여기는 전에도 와 본 적이 있었던 곳인데 나는 여기서 갑자기 길을 잃어 버린 아이처럼 머리속이 좀 혼란해졌다. 양지에서도 오들오들 떨고 있는 이 친구와 같이 놀던 것이 어제의 바로 여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저쯤에서 있을 우리집이나 뿌연게 연기를 내뿜으며 달리던 차들과 간간이 소음과 수 많은 반자국들로 박혀져 있는 보도들이 이상한 도시의 물건인 것처럼 여겨졌다. 또, 우연히 내지는 갑자기 이 친굴 오랜만에 만날 수 있게 된 기쁨과 저절로 헤어지게 될 서운함이 한꺼번에 물 쌓여졌다. 아까까지도 느껴졌던 이 친구에 대한 서벽함이 사라지고 개의 얼굴에서 생기가 돌고 있음을 보았다.

계곡을 벗어나 성곽 주위를 돌면서 가끔 나무를 굽

는 여자, 나무를 찍는 남자, 허물어질듯한 높다란 성위를 오르는 아이들을 보았다. 갈수록 길이 험해지고 나무가지에 미끄러지고 하면서 나는 금방 땅에서 꼭 솟아 난 아이같이 분열된 의식인채 신비스럽게 모든 것이 보여졌다.

하긴 지금은 겨울인데다가 이 친구는 몇달을 문밖걸음도 하지 않고 상앞에서만 오그리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더이상 걷기가 힘든 것은 당연했다. 그래서 성곽 저쪽의 암자까지는 가지 못하고 개를 부축하여 내려오지 않을 수 없었다.

어둑어둑할 녀의 찬바람이 불을 스칠때마다 내부에서 올라 오는 열기와 맞부딪쳐 후끈거렸다. 성곽 맞은 편에서도 들리는 것같은 똑딱 소리로 험하고 잘 보이지 않는 길을 콧노래를 부르면서 내려올 수 있었지만, 이 추운 날 나는 바쁜 친구를 끌고 왜 여기까지나 올라 왔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렇지만, 이런 때 옷깃을 팍 여민채 분망스럽게 종종이 사라져 버리는 사람들에게, 늘 채찍질 당하는 불안한 생활의 습성에서, 또는 결국엔 모래알처럼 날날이 흩어지고 말 것이라는 상념에서 뒤흔 날 순간을 찾아, 돌파구니를 찾아 이렇게 헤매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가게에서 산 사과즙을 훌쩍이면서 친구는 점점 불과

눈두덩이 빨개지기 시작하였다. 물지도 않은 애기를  
 이것저것 툭툭 내밀더니 이내 커다랗고 가쁜 숨소리로  
 변하였다. 나도 아랫목의 발이 스프르 녹기 시작하면  
 서 노곤해져 일어나기가 정말 싫었지만 불을 끄고 슬  
 며시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방문을 여는 순간, 사  
 방이 어둠에 배어 있고 저 만큼서 벽 버티고 있던  
 산조차도 어둠에 푹 젖어 있었다. 이따끔 콧속으로도  
 스미는 싸늘한 바람이 머릿속을 맑게 해주었지만 조금  
 은 미안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자주 뒤를 돌아다 보며  
 걸어 나왔다. 그리고 답답하게 매여 있는 이 생활속  
 에서 즐기게 움직이고 싶음과 그런 가능성과 기대감  
 을 가득 지니고 출고 킁킁한 길을 쪽 걸어 나온 것  
 이었다.

x        x        x        x

\*    임    원    진    \*

고문: 정동우 (소장)    김진기 (부소장)

정원도 (교무주임)

회장: 하양배, 부회장: 김경중    김은주

총무: 박순필, 섭외: 정대길, 재정: 박미향

간사: 고용번    오준근    박정호    김동수

김달명    홍기표    박기만    김주성

## 겨울 밤의 追憶

이 영 열

○ 아!

벌써 밤이 이윽하오.

하이얀 눈들이 소복히 쌓였으면 차라리 이밤도 포근하련만 다 차지 못한 달빛만이 넓으나 넓은 공간을 깃잡다 못해 매지마저 마구 허물어 버리고 마는 괴로운 밤이구려.

기억하고픈 그날은 아니지만 그날 그밤도 몹시나 허여 멀건한 달빛이 야속스럽게 마지막 생을 장식하려는 잎새들에 창백스레 반사되었던 밤이었다. 생각되오 입김마저 얼어붙을듯한 추운밤. 산새들마저 깃털을 움추리며 즐거움이 가득찬 긴-긴 겨울밤을 장식하기에 시간이 가지 않던 밤 유난스레 치악골 계곡물은 심히 울었다고 느껴지는구려. 반쯤 얼어 붙은 즐기 사이로 뻗어난 돌들을 퐁퐁 얼어붙은 조목한 발끝으로 몇번인가 흔들어 보곤 쟁그리며 절뚝이던 ○아.

까만 머리칼을 뒤로 젖힌 채 하늘을 미워하며 걷다가 정강이를 어루만지던 ○아.

내일이 오는 것이 몹시나 겁이 난다고, 오늘이 영원이었으면 좋겠다며 숨뭉치같은 손을 말기며 걸음을 멈추던

○아.

아직도 밤은 깊지 않았요. 깊지 않았기에 더욱 더 깊은 심연에서 ○아의 모습이 떠오르는구려.

아직도 멀었었지요. - 큰길에 있는 곳까지 오바갓을 세운채 치렁거리며 훑날리던 당신의 뒷 모습이 보고 싶구려. 그림자도 없는 나무 밑에서 먼 하늘을 우러르던 한마리 까치만 같던 당신의 그 아름답던 자세가 몹시 보고 싶구려. ○아를 보고 있으면 얼어 오던 온 몸이 녹아 내리던 내 마음, 진정이지 당신의 그 웃이 겁기 때문만은 아니었다오.

당신은 무척이나 음악을 즐겼었지요. 차가운 밤공기가 입밖에서 서리로 화해버려도 ○아 당신은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노래를 불렀지요. 난 당신곁에서 두손을 모아 휘파람을 불며 그 고운 노래를 끝질 흠어 버렸어도 사랄짝 미소로만 양탈하던 그밤, 사내의 가슴은 참으로 약한가 보오.

이제 또 못다한 한을 풀며 낙엽이 텅구오. 색바랜 바바리 코트빛보다도 처량한 잎새들. 오랫동안 창박세제를 희원하며 살아온 불치의 환자같이 즐기만이 불룩스런 잎새들이 얼은 소리를 내며 대지에 몸을 맡기는 순간 어쩌면 이다지도 내가 서러워지는지 모르겠구려.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일까요?

○아!

당신은 이밤을 어떻게 보내오. 수없이 많은 별들처럼  
수없이 많은 인간들을 미워하며 보내는 이밤은 아니겠지요?  
아무리 미운 미물들도 아무리 천한 천지간의 생물  
들도 잔잔한 호수에 비치는 반대의 세계는 아름다운 것  
이래요. 평화롭기만 하고 조용하기만 하며 사랑과 웃음  
과 즐거움만으로 충만한 세상이라요. 무서운 태풍이 휘  
몰아 쳐도 사나운 천둥이 엄습한다 해도 참고 견디며  
기다리노라면 밝은 태양과 함께 꿈의 동산은 다시 찾아  
온다오.

○ 아!

이제는 기억하기에도 이제는 더이상 아름다웠던 추억  
들을 엮어 내기에도 지쳐 버렸오. 이렇게 추운 날이면  
몹시나 생각키우던 당신의 모습들이 밤이 깊어 질수록  
희미해져 오오. 아니 희미해지도록 애써 머릴 흔들며  
당신을 잊으려 하오만 - 결코 오늘이 가장 추운 날은  
아니지요.

○ 아!

부디 이밤사 편안하시고 고운 꿈 얻으소서.  
더 추운 날 당신이 좋아하는 노텔 부르며 찾아 오리  
라. 깊어만 가는 겨울밤에 아스라하게 회원해 보오.  
이밤은 부디 즐거운 밤이 되소서.

추운 겨울밤에

○ 아가 그리워.

## “ 멀 리 一 線 에 서 ”

이 승 곤 ( 5 期 )

아직도 매케한 火藥의 대음이 채 가시지 않은 사격장에서 ... 이 흐르는 역사의 어드메쯤인가 보이지 않는 한 구석에 서있는 나를 발견하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공허의 수렁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울림없는 늑대의 울음: .....

어둠 만이 있는 까아만 공간에서 늑대 대장의 동족을 부르는 울음을 낫전으로만 흘리고 있었읍니다.

돌아올줄 모르는 메아리는 아직도 끝없는 공간을 달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드메로 가 부딪혀서 그 동족들이, 부하들이 모여질지도 모르는 그 늑대의 울음은 지금도 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내 가슴에 와 닿는 울음은 아니겠지.

아직도 열외자의 의식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자신이 부끄럼기만 합니다. 가파른 언덕만을 기어 오르던 겨울이 하얀 눈들을 토해내고 있는군요.

일파리도 없는 가지 위에 雪花를 피우며 먼 곳, 떠나있는 이의 가슴에도 어머니의 마음을 심어주는 눈송이가 銃聲이 그치지 않는 전장에도 저녁 밥 짓는 연



기가 평화롭게 피어 오르는 시골의 초가 지붕위로  
마구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마음으로 공허의 밀바닥 만을 밟아 먹다가  
벌써 두번째로 軍에서 속기제와 동문회지를 받았습니다.

나의 이름이 나의 소재가 어느 한 구석에 흐르는  
역사 위에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광장에 서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제 울음우는 늑대의 함성에 대답해야 되겠다 마음  
을 가슴에서 토해 내립니다.

양성소의 선생님들과 회장님 이하 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양성소에서 오늘도 속기에로의 험한 길을 달리고 있  
는 여러분의 전투를 빕니다.

오기 졸업생 이 승 곤 드림

(육군 제3하사관학교 교도 제1중대)



## < 서 오 능 고 개 >

한 진 규 ( 6 期 )

서오능 고개 -

서울과 경기도 간 경계지

뛰든 여기를 지나지 않고는

어느편으로도 갈 수 없는 접이지대

고개 양켄에는 심연의 고지가 우뚝 내려앉아 있다.

이편에서 갈랑이면 바라보는 목적

그리고 여기는 과정

거기에는

한껏 백년 사는 자들의 욕망이 있다.

허우덕거리고 갈구하며 -

비열과 비겁과 비굴이 삼위일체를 이루어

위선 속에 만연하는 심성의 가난함을 품에 안고

각박한 숨을 몰아쉬며 넘는이

천태만상의 고투가 보인다.

맑은 젓빛안개로 외투를 입었다.

온 허물과 부정한 각질을 두둔하려는 듯

아직

채 밝지 아니한 고개는,

고동치마한 아낙이 접게 넘고 있다.

아래로 뵈는 영상을 쫓아서

구슬땀 흐르는 가슴은

바로 에프랑제의 심정일까?

## < 꿈 의 엽 서 >

장 순 임 ( 9 期 )

갈대가 바람에 날리고  
고운 강 물결이 밀려옵니다.  
그리움이 새파랗게 얼어붙은  
오월의 하늘아래.  
소녀가 -  
사랑을 알던날.  
그때는 무척 피로웠고  
피로운 만큼  
이별도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제 티없이 맑은 강물에  
소녀의 어지러운 꿈이 흘러가고  
은하수 불빛보다 더 아련한 노을이  
강변에 와 닿습니다.  
저 멀리  
황혼의 사라진 어둠이 오면  
따스한 채운이 아쉬운  
이 모두가  
어실픈 어느 모퉁이의  
서러움인 줄 믿겠습니다.



< 死 >

金 在 成 ( 9 期 )

偽善의 人間이 이 세상에 태어나  
거짓 사랑으로  
아담을 유혹하여  
욕망의 구렁텅이로 특급열차를 타고  
치달리던 그때  
나는 무엇을 하였던고  
人間이 무섭고 文明의 바람이 싫어  
오직 자연만이 내게오너  
반가움에  
달려가보면  
그것 역시 위선과 슬픔으로 가득차  
내게서 떠나 버린다.  
무서움에  
외로움에  
쓸쓸함에  
나 자신 주체할 길 없어  
드디어  
사탄의 유혹이 다가온다.  
얼굴을 돌리자  
고개를 젓자  
뒤도 안 돌아보고 뛰자  
하지만 ……  
호기심은  
나를  
죽음의 철로를 뛰게 만들었다.



< 귀 로 >

김 진 태 ( 8 期 )

어느 아련한 먼 곳이기에  
미련을 안고  
한 여름밤의 별빛 속을 헤치며  
오늘도 발버둥치며 가야만 하나  
사라져가는 추억 속에  
한 폭의 아름다운 풍경화가  
소리없이  
소리없이 스쳐간다네  
고향의 마지막 그리움이  
한없이 멀어져 갈 찰나  
이제 돌아가고 싶은 꿈속의 고향이여



## 어 설 뜬 회 고 담

윤 회 역 (8 期)

추위가 마치 마지막 심술이라도 부리는듯 영하의 날씨가 며칠 계속되리라는 예보다.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속기와 인연을 맺은지도 어느덧 두해가 되어간다. 좋은, 싫든 장래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내 본직이 속기이며 또 내 생활의 주임에는 틀림없다.

속기의 「속」자도 모르던 내가 입소해서 처음 몇달간 속기는 내 적성에 안 맞나? 또는 내 적성에는 안맞아 이렇게 의심도 해보고 스스로 단정도 해보고 하던 일이며 “억아, 우리 너나 나나 해 보아야 별 붙일 없으니 까 대학이나 가자, 이렇게 권하던 그 친구가 문득 생각난다. 하긴 연 며칠간 계속 내 속제는 상, 중, 하의 점수중 하만을 기록해서 나도 미상불 풀이 죽어있었다. 그 친구는 먼저 결단을 내려 그만 두었지만 나는 그 즈음에도 갈팡질팡 …… 두가지 다 붙잡은 상태에서 여름방학을 맞이했다. 그때부터 이려다간 죽도 밥도 안되고 5층 덮밥이 되어 버릴것 같았다. 그래 방학중 매일 나오며 속기에 집중적으로 해 보니 좀 뭔가 되는가 싶었다.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져 속기에 전념했

다. 하지만 내 능력부족인지는 몰라도 성적은 별로 신통치 못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동기중에는 비슷 비슷한 수준의 층이 두터워 누가 잘하고 못하고는 잘 구별이 안될만큼 웅기중기 붙어있었다. 그래서 苦戰도 많이하고 한것이 나에게 더욱 분발케한 요인이 되었는데도 모른다. 하여튼 결과는 합격되어 채용은 되었지만 그날의 運을 그 누구에게 감사한다.

발령받기 전 두달동안 K군과 많은 잡담으로 공백기를 메우고 ..... 8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 속기사가 되고 보니, 자유스러운 행동으로 생활하던 학생기분 때와는 다른 무슨 규율 비슷한 것들이 나를 제어하곤 했다.

그것은 처음 사회인으로서 어떤 뚜렷한 책임을 진 입장을 마음 한 구석에 인식한 까닭때문이기도 했다.

여러 사람이 나를 지켜보는 것같은 괜한 감정도 떠올라 거북스럽게도 느껴보고 오늘 한 내 행동이 잘못된 점이 없나 반성도 해보았다.

양성소에서와 선생님이 내가 사무처의 한 직원이 된 이후에는 계장님, 또 우리를 위해 수고하며 곧잘 농담도 던지시던 선배님도 사무실에서는 서먹하게만 느껴졌으니 말이다. 하여튼 8월 이후 퇴약별이 내리찍는 그달은 나에게서 너무나 고역이었다. 어떤 면에서는 속기 배울 때가 좋았다고 생각도 해보았다.

책상 위에서 출기가 수십번, 종이 쭉서 자리에 앉기도 거북했고, 신문도 뒤적여 보고 책은 보는듯 마는듯 얼른 여름이 지나가기만 바랐다.

확실히 내가 생각해도 그때의 어색한 내 행동에 스스로 우스워지고 초년병 흉내는 다 내본 것 같았다.

그것도 잠깐, 10월에서 부터 본격적인 정기국회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나를 더욱 마르게한 원인같기도 하다. 물론 나야 항상 주위로 부터 비실하다 하지만...

정기국회의 폐회는 마치 오아시스를 사막에서 만난듯 나의 마음을 한껏 풀어 해쳤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군가 우습고 엄살을 피는구나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양성소에서는 남들 만큼은 한 것같은데 어딜, 원고지 매수 마다 주무님의 빨간 볼펜과 계장님의 검정 싸인펜이 조화를 이루어 내 원고지는 단풍으로 물들어져 있었고 또한 상임위원회에서의 휴대폰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 당황하던 일, 회의장을 못찾아 헤메던 일, 등등, 지금 생각하면 그 많은 실수들에 새삼 실소해 본다. 어쨌든 그 덕분에 전망중 환자라는 별명도 얻었다.

간신히 정기국회를 마칠 즈음에는 그 많은 원고를 어떻게 썼는지 지금도 내 친구의 여드름이 없어진 것처럼 시원스러운 동시에 속기실무가 어떠하다는 것을



어느정도는 알 것 같다. 물론 그 중에는 주무님과 여러 주위의 분들의 덕택이 큰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주위 여러분들의 덕택으로 무사히 76년을 마무리한 것에 새삼 고마움을 느낀다.

이제는 어느 누구에게도 서먹함이나 거북스러움은 안 느낀다. 초년병때의 노파심은 내 마음에서 싹 사라져 버리고 더 즐겁고 알찬 하루를 보내기 위해 오늘도 노력한다.

이제 새해를 맞아서 내 가슴 한 구석에는 다시 실무하는 날이오면 이 경험을 토대로 더 정확히 기록하는 속기사가 되리라 각오해 본다.

끝으로 이 추운 겨울의 한풍이 내게 따듯이 느껴질은 여러 선생님과 선배님들의 후의어린 체온 덕분이리라.

- 끝 -



\* 양 케 이 트 \*

(說 問)

1. 감명 깊게 읽은 책
2. 감동적이었던 영화
3. 평소 존경하는 인물 (국내·국외)
4. 애인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일때
5. 즐겨 듣는 음악
6. 나의 좌우명
7. 동문회 운영과 회지편집에 대해 하고싶은 말

\* 이영 열 ( 1 기 )

1. 금삼외 피
2. 내모든 것을 다 주어도
3. 당신·술제니 친
4. 나한테 혼나고 눈물을 찍어 닦을때
5. 옛날 노래라면 다 좋소
6. 현실을 직시하고 오늘을 충실히 살라. 인생은 오늘  
의 이 순간과의 투쟁 과정이니까 -
7. 선구자들이여 / 양팔, 양다리가 으스러지도록 밀고  
끌어 당기시오. 험한 고개는 멀지 않았나이다.

\* 구관모 ( 1 기 )

1. 대망
2. 그들과 양지, 마음의 행로, 우수

3. JOHN FICHERALD KENNADY

4. 내가 기대했던 그대로 행동할 때
5. 태양의 파편, 무랑루즈, 태양은 가득히
6. 誠實, 微意, 精誠을 다하는 삶
7. 쉬지 말고, 끊이지 말고, 꾸준하며, 열심히, 그리고  
알차게 ……

\* 하양배 ( 1기 )

1. 플루타아크 영웅전
2. 뱀허
3. 도산 안창호·카아네기
4. 환하게 웃음 띄울때
5. 철새는 날아가고
6. 誠
- 7.

\* 김형곤 ( 2기 )

1. 날쌔돌이 (만화)
2. 킹콩, 간돌이
3. 고우영, 마시다빠더
4. 잘 암시롱! 왜 물어
5. 짱하고 해뜰날
6. 1.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2. 이땅에  
3. 태어났다.
7. 만화춤 간간히 그리 넣었으면 ……

\* 한상구 ( 3기 )

1. 팔뚝이의 모험 ( 만화 )
2. 로버트 태권 V
3. 봉이김선달 · 감비노
4. 바가지 굶을 때?
5. 향토 예비군가
6. 피워라, 마셔라, 쪼여라.
7. 1. 회지 내용중 속기에 대한 연구발표나 자료도 실었으면,  
2. 간사등을 통한 외부회원과의 많은 교류 및 모임 주선등으로 적극 참여시켜 회비도 거두고 동문회의 명실상부한 발전을 도모토록 꾸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

\* 이승철 ( 4기 )

1. 땀이 만화
2. 산파보호
3. 함석헌 · 히틀러
4. 꼬집고 눈흘길때
5. 애국가
6. 출기찬 노력으로 마셔보자!
7. 소싯적 해봅시다!

\* 김은숙 ( 4기 )

1. 어떤 사람의 엽서
2. 비우

3. 이승철 ( 4 기 ) · ALAN DELON

4. 어린아이처럼 천진할 때

5. 70년대 영화음악

6. 네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을 사랑하라.

7. 많은 성의가 엿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이태호 ( 4 기 )

1.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2. ALL MINE TO GIVE

3. 이순신 · 링컨

4. 애인처럼 보일때

5. 노래없는 대중가요 ( 경음악 )

6. 有志者 事必勝

7. 보다 많은 회원이 참여하는 회지가 되었으면 -

\* 정대길 ( 5 기 )

1. 폭풍의 언덕

2. SUN SHINE

3. 박정희 · 맥아더

4. 눈으로 말할때

5. MY SWEET LADY

6. 믿음 ( 실뢰 )

7.

\* 홍기표 ( 6 기 )

1. 최후의 유혹
2. 철인 007
3. 청마 유치환 · 베토벤
4. 쇠주 한잔에 바알개진 두분에 가느다란 눈을 하고 새빨간 입술에 얇은 미소가 번질 때
5. 죽장에 샷갓쓰고 ……
6. 「敗殘은 오직 罪惡이었도다」
- 7.

\* 손재욱 ( 6 기 )

1. 25 시
2. 예수
3. 신사임당 · 로즈 F 케네디
4. ?
5. 쇼팽의 즉흥환상곡
6. 中庸
- 7.

\* 최길주 ( 7 기 )

1. 예수님의 생애
2. 의사 지바고
3. 밤 10시에 지나가는 떡장수 할머니 · 장개석씨
4. 솔베이지의 노래들 부를때
5. 1812년 서곡
6. “생은 충실히, 역행은 하지 않는다.”

7. 불휘기론 남<sup>2</sup> 북<sup>2</sup>매 아니 될씨 신미 기론 르론  
그<sup>2</sup>래 아니 그출썸  
우리도 그치지 말고 만고 상청 하리라.

\* 이주성 ( 7 기 )

1. 적과혹
2.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3. 면암 최익현 · 카아네기
4. 다음번 설문에는 꼭 쓸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5. Pop Song 과 약간의 CLASSIC
6. 목표에 산다.
- 7.

\* 박치명 ( 7 기 )

1. 삶과 죽음의 번뇌
2. 벤허
3. 백범 김구 · 칸트
4. 배고파서 식사할때
5. 성가면 어떤 곡이던지
6. 최선을 다하라
7. 결단력 있고 짜임새 있는 운영을 .....

\* 강수현 ( 8 기 )

1. 이방인
2. 영자의 전성시대
3. 윤동주 · 칼릴지브란
4. 내가 연정을 품은 여자가 나를 사랑하려는 표정  
으로 말을 하는 그 순간

5. 채동선의 “망향”

6. 살짜기 읍서예

7. 간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밀반침을 부탁드립니다.

\* 박영수 ( 8 기 )

1.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2. 크리스티네 여왕 ( 크레타 가르보 주연 )

3. 황희정승 · 필리핀의 메시아 박사 이사이 대통령

4. 경험한지 오래라 기억에 남지않는군요.

5. 체인징 파트너

6. 앞으로, 앞으로

7.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착실히 성장해 나갑니다.

\* 윤희억 ( 「칠전팔기」의 8 기 )

1. 이순신 전기

2. 락빠용

3. 이순신 · 처어철

4. 가장 매력적으로 보일때

5. HOLIDAY

6. 자신을 믿자!

7.

\* 박미향 ( 8 기 )

1. 고독한 당신을 위하여 ( 루이제 린저 )

2. 마음의 행로

3. 내친구 J. Dr. 슈바이처

4. 무언가에 질지한 모습을 보일때

5. 하이든의 현악 4 중주 · 비발디의 四季

6. 신음하면서 탐구하는 자만을 시인할 수 있다.



7. 개개인이 관심을 가졌으면……

\* 정보영 ( 9 기 )

1. 황순원의 “소나기”
2. 나타샤
3. 신사임당
4. 별로 말없이 마주보고 똑같이 웃고, 같은 생각의  
실마리를 갖고 있다고 느꼈을때
5. 슈벨트의 “아베마리아”
6. 해바라기 보담두 더 밝은 웃음으로 착하게 살고  
싶어요.

7.

\* 조영기 ( 9 기 )

1. 대지 ( 필벽 )
2. 스잔나
3. 김환란여사 · 케베디
4. 그대는 미래의 꿈속에서 오지 않았노라.
5. POP MUSIC 이라면 ……
6. 역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인어가 되자 /
7. 동그라미 ( 원주 ) 가 파문이 번지듯 계속 커지길…

\* 전재곤 ( 명예 회원 )

1. 흙
2. 콜렉터 · 올리버트위스트
3. 김태길 · 페스탈로찌
4. 「화」를 풀 때
5. 「아름다운 것들」
6. 誠 · 信
7. .

## ※ 同 門 會 沿 革

○ 1974.12.14. 18:00

国会(太平路) 第2別館 速記士養成所에서 45名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創立總會開催.

會則通過에 이어 會長에 金致元, 副會長에 趙永昌, 李賢熙會員을 各各 選出.

○ 1975.9.5.

任員會議을 열어 야유회를 갖기위한 現地踏査班 構成 派遣

○ 1975.9.14.

45名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野遊會 實施.

○ 1975.12.26. 18:00

汝矣島 新築 国会議事堂에서 會員 34名이 參席한 가운데 第2次 定期總會開催 事業, 財政, 監査報告에 이어 會長에 盧熙南, 副會長에 李承哲, 金彩榮會員을 各各 選出

○ 1976.12.30.

任員會議을 開催코 總務에 韓相九, 涉外에 洪淳寬, 財政에 孫在玉會員을 各各 選任

○ 1976.1.6.

任員會議을 開催코 各期別 幹事 및 顧問推戴, 會報 會誌 發刊을 議決.

○ 1976.1.7.

回報1号 發行(103部 發送)

○ 1976.1.16.

任員會議 開催코 5個月分 會費를 1월에 一時 繰出  
키로 하고 新入會員(8期生)의 入會願書를 받기로 함.  
또한 修了式에 記念品 傳達키로 함.

○ 1976.1.20. 10:00

速記士養成所에서 本會誌에 掲載한 座談會 実施(金敬  
萬, 李潤和, 鄭宇鎔, 吳壽東先生任)

○ 1976.1.29.

同門會誌 명칭을 「圓周」로 採択  
8期生 卒業記念品(불펜 60個)注文.

○ 1976.2.13.

同門會誌 「圓周」 發刊 8期生 卒業記念品 傳達

○ 1976.4.27.

速記協會體育大會에 記念品 傳達

○ 1976.9.14.

憲仁陵에서 野遊會 実施

○ 1976.12.18.

國會公務員研修院에서 第3回 定期總會 任員選出:  
會長 河良培, 副會長 金京中, 金銀洙, 會員 41名 參席

○ 1976.12.20.

會長團으로부터 總務 朴淳弼, 渉外 鄭大吉, 財政 朴瀾  
香을 任命, 任員會議를 開催코 顧問으로 鄭東祐(所長)  
金鎮基(副所長), 鄭源道(教務主任)를 推戴.

○ 1976.12.30.

回報 145枚 發送(外部會員 95名에게 速記協會  
速記界와 送付) 回報內容: 任員紹介, 양케이트.

○ 1977.1.5.

同門會誌「圓周」 第2号發刊에 關하여 任員會議開催코  
發刊費用, 原稿蒐集 等을 論議.

## 會 員 名 單

### - 1 기 -

모용번	김치원	박대성	최성주	현병고	하양배
윤옥희	이영열	구관모	이건식	황우인	홍재승
정계영	구순자	강원선	김용수	김혜경	조동호
이일금	이상호	신언화	이환범	이영자	이규현
이용민	이옥향	한광명	지장선	함춘수	

### - 2 기 -

김형곤	오준근	홍순관	노희남	이현희	고석광
송혜경	김명식	구순화	김영채	최종귀	이진순
정하선	홍기운	유익상	양순희	김부례	이유경
김기열	이호산	서귀석	김미경	김정운	유명진
임원식	황규원	김경애	김경자	오세인	김태연
김길수					

### - 3 기 -

이세철	한상구	김경중	박정호	안희영	차공순
김선옥	김채영	장희진	김경해	박순필	조영창
신천교	임명심	이순애	나석균	김영해	김광섭
이준무	김수관	이창구	이영주	고구환	최정래
김현호	마혜영	박창학	이영숙	김영호	김종룡
오분희	신진숙	김창섭	노천용	김경원	

- 4 기 -

이승철	유승관	최예숙	김은주	김은숙	김동수
김상기	이영애	차낙호	이정숙	김성자	이태호
한성희	정혜심	김경수	박용천	김내주	*유명애
이주성	김성래	윤수호	안진석	조은진	서순덕
김정애	이정규	남영희	이보영	권오윤	홍문식

- 5 기 -

정대길	권영찬	이미해	김금와	우종애	이승곤
이순구	장두순	안영미	이돈석	윤필로	정태권
김종덕	이근복	박옥경	김성규	조현심	허창
김규순	최정숙	성낙희	문우균	이용춘	박왕규
박정희	김달명	문명선	오중택	정대천	강부용
윤호신	심재성	이선희	이한구	홍순선	조영희
백정미	박순동	홍백화	송봉근	민영탁	

- 6 기 -

조정구	홍기표	김종철	손제옥	김학순	김난희
이인화	안재길	변수한	황영순	현영연	운혜란
백옥진	김귀순	박혜순	고영탄	송교성	*안순희
최말녀	박정기	최수중	김창균	오세화	김향숙
강성진	권영화	이창순	박원천	장성호	장정의
정인범	신경자	박종희	한진규	김주철	김재학
박봉서	박용탁	박홍수	박희병	송인섭	엄복진

이재구 이두성 이상근 이상태 이인철 이명숙  
 유영준 김계담 홍옥표 노관옥 박중만 임영순  
 유혜선

- 7 기 -

박기만 이주성 박치명 최길주 김광복 김정숙  
 최명훈 이희자 조창건 최승철 표선안 이정숙  
 노태희 유연호 박종남 고정남 이형근 최경옥  
 임창길 김명례 조선자 김용무 서영수 이의실  
 윤정원 유성수 최호성 정홍호 신현숙 유병희  
 이봉대 강신훈 이병역 권혁 박범준 김문기

- 8 기 -

강수현 김주성 윤희여 김화자 박미향 박영수  
 김미애 김명수 김미원 김진태 김춘원 김주익  
 김혜석 박경석 박명옥 박영혜 박종범 서영희  
 오광웅 이기배 이양실 이연희 이장호 이해자  
 전구호 전동수 정덕훈 정재영 차재영 황휘  
 이희승 문용옥 조영일 김경희 김정덕 박유희  
 엽명덕 최봉숙

- 9 기 -

서승범 정상철 김현수 노은경 이순희 이시년  
 지화일 우정순 고영원 박인혜 전난영 이소정  
 윤상운 조영기 이정희 이화련 정보영 심순옥  
 오동범 윤용우 이영화 김재성 이승희 오성원  
 서주철 유영호 장순임 김원본 최관봉 김희자  
 -명예회원- 김창진 전재곤 정명순 이경식

## 編 輯 後 記

• 저 南國의 후끈한 熱風에 추위에 언 몸을 녹이고  
픈 마음 간절하다.

살을 에이는 北風이 기승을 떨며 40 年來의 酷寒을  
물고 왔다. 또 다시 氷河期가 始作된다는 學者들의  
主張을 들을라치면 어느새 온몸은 움추리다 못해 硬直  
一步前이다. 그렇지만 여기 우리들, 꺼지 잠은 內燃의  
情熱은 새해 丁巳年을 맞아 第3号의 깃발을 울리며  
미약하나마 선을 보인다.

\*\* 거리·시간등 제반여건의 어려움에도 玉稿를 보내  
주신 外部會員 諸氏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線과 翻을 달리는 快速의 날렵함과 歲月을 懷妊하여  
忍苦의 結實을 거두는 삶이 永遠한 勝者일 円周人 여  
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榮光이 가득하기를 빌면서 아낌  
없는 聲援을 기대한다.

<銅>

圓 周 <第2号>  
1977年2月12日 発行  
發行人 河 良 培  
編輯人 金 銅 洙  
国会速記士養成所同門会  
서울特別市永登浦區汝矣島洞1番地  
Tel 7802-2471~2476

高級速記士養成 (案内)

毎月初開講(수시 입학可)

◎ 國文速記 : 高麗法式

創案者 金 天 漢 先生 直講

{ 속성반 ..... 3 개 월  
정규반 ..... 6 개 월

◎ 英文法式 : Gregg 式

專 擔 : 盧 英 民 教授 直講

\* 美 最新 I. P. M (高級秘書用)

\* 8 週 完

官認 新 世 界 速 記 學 院

院 長 盧 英 民

TEL ㉠ 3 3 3 0

(市警뒤 해남빌딩옆 20m)



